



주간통일정세 2010-42(2010.10.11~10.17)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0-42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통신 김정일, ‘中저우융강 접견’ 보도(10/11,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1일 축하사절단을 이끌고 방북한 저우융강(周永康)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당서열 9위)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고 보도
 - 통신은 “주영강은 조선노동당 창건 65돌을 다시금 열렬히 축하하고 대표단이 준비해온 선물을 드렸다”며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시고 호금도 총서기 동지를 비롯한 중국공산당 중앙영도집단에 인사를 전하신 다음 주영강과 담화를 하고 오찬을 마셨다”고 밝힘.
 - 이날 면담에 당 비서를 겸하고 있는 김영일 국제부장,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배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정일의 참석 여부는 언급하지 않음.
 -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회담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초청했으며, 저우 상무위원은 김 위원장을 포함한 ‘새 지도부’의 방중을 희망하는 후 주석의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 통신은 또 저우 상무위원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대표단이 방북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환했다고 소개하였으며 공항에는 김기남·최태복 당 비서, 김영일 당 비서 겸 국제부장, 주영식 자강도 당 책임비서, 김성남 당 국제부 부부장, 김성기 외무성 부상, 구본태 무역성 부상 등이 대표단을 환송하였음.

- **김정일, “中 후진타오 방북 희망”(10/11,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저우융강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 방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보도
 - 김 위원장은 “조·중(북중)은 고위층이 상호 방문하는 좋은 전통을 계승해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본인을 비롯한 중앙 영도집단 구성원들은 중국에 자주 가보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함.
 - 또한 “조선노동당은 조·중 관계가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건강하게 발전해온 것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쌍방은 전략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조·중 양국은 정치



면에서 상호신뢰의 전범을 구축해야할 뿐 아니라 경제 면의 상호협력에서도 전범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앞으로 부단히 경제협력 분야 수준을 높여가도록 하자”고 제안

● **김정은 권력서열 6위로 정해진 듯(10/11, 교도통신)**

- 통신은 지난달 28일 열린 북한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당 지도부에 들어간 김정은의 동정기사가 이날까지 모든 8건에 달한다고 전함.
- 북한 매체의 간부 소개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당정치국 상무위원 3명에 이어 김정은을 다섯 번째로 보도.

● **저우용강, “김일성, 중국인의 위대한 친구”(10/11, 신화통신)**

- 통신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창건 65주년 축하 사절단을 이끌고 방북 중인 저우용강(周永康)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10일 김일성 주석의 생가인 평양 만경대를 방문해 “김 주석은 조선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자 중국 인민의 위대한 친구”라고 극찬했다고 전함.
- 저우 상무위원은 만경대를 찾아 북한 측 안내를 받으며 둘러보고 나서 “나는 여기서 깊은 혁명 전통을 교육받았다”면서 “김 주석은 마오쩌둥 주석 등 중국의 선대 혁명기들과 함께 전통적인 중조 우의를 손수 건설했다”고 함.
- 이어 “김 주석은 양국 인민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있다”며 “양국의 전통적 우의가 새 시대에도 발전해나가기 바란다”고 덧붙임.

● **北, 열병식 취재제한 없었다(10/11, 마이니치)**

- 신문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인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시내에서 펼쳐진 열병식에서 외국 언론에 대한 취재제한은 일절 없었다고 보도
- 신문은 북한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식의 하나로 진행된 열병식에서 외국언론의 사진 및 영상 촬영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며 김정일 부자에 대한 근접취재가 허용됐음은 물론 시민을 상대로 한 취재도 자유로웠다고 전함.
- 신문은 북한 외무성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열병식을 취재한 외국언론은 모두 18개사 95명이었으며 일본에서는 마이니치신문과 교도통신, TBS 등 5개사가 방북했다고 보도
- 마이니치신문 취재진의 경우 지난 8일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해 9일 발급 받았으며 당일 오후 평양에 들어갔으며, 북한이 외국 언론의 비자신청을 간단하게 수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함.
- 외국 언론의 숙소인 고려호텔에는 인터넷과 국제전화 사용이 가능한 프레젠테이션이 설치됐고 컴퓨터 기술자가 배치돼 인터넷 접속 장애 등에 정성껏 대응했다고 전함.



● 北김정남… ‘3대 세습에 반대’(10/12, TV아사히)

- 김정남은 지난 9일 중국 베이징 시내에서 이뤄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어로 “개인적으로 3대 세습에 대해 저는 반대합니다”라고 말함.
- 김정남은 곧바로 “(세습에는) 나름대로 그럴만한 내부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내부적 요인이 있다면 그것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임.
- 김정남은 또 김 위원장의 장남이면서도 후계자가 되지 못하는데 대한 질문을 받고 “난 원래 그 점에 대해 유감도 없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말함.
- 장남인 자신 대신 동생이 후계자가 된 원인에 대해서는 “그것은 역시 부친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동생(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 주민들의 윤택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었으면 한다”는 말을 덧붙임.
- 동생이 자신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해외에서 동생이 필요로 할 때 도움 용의가 있다”며 “언제든지 난 동생을 도울 것”이라고 대답

● 北, 김정은 미화 ‘혈안’…연일 허황한 선전 (10/12,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북한 당국이 후계자 김정은을 미화하기 위해 연일 황당한 내용의 선전을 벌여 주민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고 전함.
- 이어 방송은 평안북도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당창건 65주년 기념일이었던 지난 10일 ‘불세출의 영도자를 맞이한 우리민족의 행운’이란 제목의 ‘방송정론’을 모든 주민들한테 듣도록 했는데, 김정은을 비현실적으로 미화하는 허황한 내용이었다고 밝힘.
- 방송에 따르면 ‘방송정론’에는 김정은이 정치, 경제, 문화뿐 아니라 역사와 군사에도 정통하고, 불과 2년간의 유학 생활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4개 국어를 숙달한 천재라고 소개
- 또 이에 만족하지 못한 김정은이 7개 국어를 완전 정복하겠다고 결심, 김정일 위원장을 도와 국가 전반의 사업을 지도하는 와중에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를 학습하고 있다고 함.
- 김정은의 이런 ‘천재성’은 어릴 때부터 나타나, 세 살 때는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약자로 쓴 한시 ‘광명성 찬가’를 어려운 정자로 받아 써 주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방송정론’은 주장
- 또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 것도 김정은 덕분이라고 포장돼 있음. 그가 해외 유학을 나갔을 때 ‘미제와 제국주의 열강’이 일으킨 전쟁을 목격하고 “핵을 가진 자들에게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기 때문에 핵을 갖게 됐다는 얘기
-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의 ‘농민 선동자료’ 내용에는 김정은의 농업 부문 업적이란 것들이 장황하게 열거돼 있는데, 김정은이 2008년



12월 김정일 위원장을 따라 사리원 미곡협동농장에 갔을 때 협동농장 관리위원회 건물 앞에 게시된 표준비료량 표의 오류를 즉석에서 찾아낸 뒤 새로운 형태의 미생물비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함. 그 방법대로 했더니 이듬해 정보당 최고 15t의 벼를 수확했다는 것.

- 이 선전 자료를 접한 협동농장 주민들은 “(전국의) 농장들을 김정은 대장이 한번씩 다녀가면 우리나라 식량 문제는 저절로 풀릴 것 같다”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소식통은 전함.

● 北, 11일도 휴일…“전부터 김정은 얘기 들어”(10/12, AP통신)

- 통신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11일 평양을 방문 중인 외신 기자와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모습을 드러내기 오래전부터 그에 대해 들었다고 말함.
- 통신에 따르면 박철(23)이라는 남성은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행사 취재차 방북한 이 통신 기자와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얼굴을 닮았다”며 “젊은 장군(김정은)이 어렸을 때 지능과 좋은 성품 때문에 그를 만난 모든 사람들로 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말을 우리는 들었다”고 밝힘.
- 그는 또 전날 텔레비전을 통해 김정은이 열병식에 모습을 드러낸 것을 지켜보다면서 “김정일 장군과 젊은 장군 김정은이 나라를 이끌면 (발전의) 문을 열고 더욱 강하고 번영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통신은 평양 주민들이 이날까지 연휴를 즐겼으며 당국으로부터 음식과 술 등 기념품을 받아 대동강변이나 놀이공원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고 보도
- 조향미라는 여성은 이 통신과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후 열병식 중계를 통해 그를 볼 수 있어서 매우 기뻐하며 “우리나라가 강력하다는 것,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과 김정은의 지도력으로부터 우리의 힘이 나온다는 사실에 행복하고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고 전함.

● 조총련 “영도자에 충성, 5~6세까지 이어갈 것”(10/12, 조선신보)

- 신보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허종만 책임부의장은 지난 7일 “영도자에 대한 충성의 전통과 업적을 3세와 4세, 나아가서 5세와 6세에로 영원히 이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허 책임부의장은 이날 조선회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동당 총비서 재추대 축하 중앙대회에 참석해 “우리는 조직 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보다 철저히 세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이어 “주체연호 100년대에 들어서는 2012년에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기어이 열 것”이라며 “장군님의 영도따라 조국통일위업 수행과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 특색있게 기여하고 대외활동을 보다 정력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北김정일·김정은, 열병식 참가 지휘관과 기념촬영(10/12,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이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가한 지휘관을 만나 기념촬영을 했다고 보도
- 이어 “김정일 동지께서는 열병식에 참가한 전체 지휘관들이 당의 군사노선관철에서 선봉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부대의 전투력을 더욱 높여 사회주의 조국을 금성철벽으로 사수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다”고 밝힘.
- 그러나 이 통신은 열병식 참가 지휘관과 기념촬영이 언제 어디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이날 기념촬영에는 김정일·김정은 부자와 리영호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주상성 인민보안부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 군중·병중 사령관 등 군부인사와 박도춘 당 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오일정 당 부장 등이 참석.

● **北, 軍지원금 징수·주민들 김정은에 불만(10/13, 데일리NK)**

- 매체는 북한이 지난달 28일 노동당 대표자회 개최 직후 “군 지원” 명목으로 기업소와 노동자에게 식량과 돈을 강제로 징수하면서 후계자 김정은을 향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전함.
- 이어 양강도 내부소식통을 인용, “당 대표자회 직후 시작된 ‘인민군대 지원사업’에 따라 주민들에게 배급되어야 할 식량 중 40%를 걷어갔다”며 “원래 지난 6월에 거둬야 하는 것을 화폐개혁의 후유증으로 미루다가 이번에 진행된 것”이라고 밝힘.
- 양강도 당 위원회는 9월말에서 10월초 감자 배급과정에서 군대에 보낼 양으로 1인당 96kg을 원천징수했다고 이 매체는 소개.
- 소식통은 “청년대장 동지가 군대사업부터 틀어쥐면서 국가경제가 다시 엉망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가 많다”고 전함.
- 또 주민들은 “청년대장(김정은) 동지가 등장하더니 장군님(김정일)보다 더 닦달한다”, “백성 뭇을 빼내서 군대를 먹이자는 식인데 무슨 국가정책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이냐”는 식으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고 전함.

● **北주민들, 김정은 질문에 계산된 답변(10/13, AP통신)**

- 통신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평양에 들어간 AP통신 기자는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결정된 김정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나는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 장군과 젊은 김정은 장군을 볼 때마다 우리의 조국의 힘을 느낍니다.”와 같은 ‘계산된 답변’을 들어야만 했다고 전함.
- 평양 대동강변에 소풍을 나온 박철(23)씨는 지난 10일 김정은이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노동당 창건 65주년 열병식에 참석한 장면을 TV를 통해 지켜봤다면서 “김정은 장군이 김일성 주석의 모습을 꼭



답았다”고 말함.

- 박 씨는 또 AP통신 기자에게 “젊은 장군은 어릴 때 영리하고 인성이 좋아 그를 만난 모든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위대한 지도자와 김정은 장군이 조국을 이끌면 조국은 더욱 강대해지고 번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 배드민턴을 치던 조 모씨도 김정은이 지난달 28일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것과 관련, “우리의 조국은 강력하며 우리의 힘은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 장군과 김정은 장군의 지도에서 나온다는 점을 확신한다”고 박 씨와 비슷한 발언을 했다고 보도

● 中, 김정일 부자에 ‘의미있는’ 선물…후계 동의?(10/14, 조선중앙통신)

- 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북한의 당창건 65주년을 맞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 각각 ‘우호협력 증진’과 ‘전통적 우의 계승’의 뜻이 담긴 선물을 전달했다고 보도
- 중앙통신은 13일, 축하사절단을 이끌고 방북한 저우융강(周永康)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당서열 9위)가 지난 11일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달한 선물 사진을 2장 공개
- 이 사진들을 보면, 김 위원장한테 전달된 액자에는 지난 8월 하순 방중 기간 중국 창춘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악수하는 장면과 하단에 ‘조선노동당 창건 65주년을 축하한다. 중국과 조선의 전통적 우의를 부단히 공고하게 발전시키자’는 문구가 들어가 있음.
- 김정은에게 전달된 선물은, 젊은 시절 김일성 주석이 마오쩌둥(毛澤東)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환담하는 사진과 함께 상단에 ‘상호협력과 전통적 우의를 대대로 전하자’는 요지의 문구가 들어간 접시

● 北TV, 김정일 1983년 방중 기록영화 방영 눈길(10/15, 조선중앙TV)

-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983년 6월 ‘후계자’ 시절 중국 공식방문을 담은 기록영화를 상영
- 이 방송은 “김정일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7년전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역사적인 첫 방문을 진행하셔 조(북)·중 친선의 연대기에 새로운 빛나는 장을 아로새기셨다”며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 동지의 중국방문’ 제목의 기록영화를 내보냄.
- 두 시간 분량의 이 영화에는 젊은 시절 김정일 위원장이 당시 초청자인 후야오팡(胡耀邦) 중국공산당 총서기를 비롯해 덩샤오핑(鄧小平)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리셴넨(李先念) 국가주석, 평전(彭眞)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총리의 부인 덩잉차오(鄧穎超)와 만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음.



- 특히 당시 김 위원장의 바로 옆에서 지금은 사망한 오진우 인민무력 부장과 연형묵 국방위 부위원장이 밀착해 수행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음.

● 北주민, 김정은 공개적 언급 시작(10/16, 교도통신)

- 통신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을 후계자로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보도
- 통신 기자가 만난 김일성 종합대학 실내 수영장 안내원은 “청년대장(김정은) 동지가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에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장군님(김정일)과 함께 왔다”고 말했다고 전함.
- 북한이 1968년 나포한 푸에블로호를 안내하는 평양의 한 가이드도 “인민군이 몇 년 전부터 (정은을) 대장으로서 우러러봐 왔다”고 말하였으며 그는 “우리는 (그를) 영도자 동지(김정일)와 동등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임.

● 北김정일, 옥류관 현지지도(10/1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새로 건설된 옥류관 부속 ‘요리전문식당’을 현지지도
- 통신은 “그이께서는(김 위원장) 식당의 건축형식과 내용은 물론 주방설비와 식사실의 비품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알아보고 군인건설자들이 식당을 최상으로 수준으로 건설한데 대해 큰 만족을 표시했다”면서 “옥류관 요리전문식당에서는 조선민족요리는 물론 자라, 연어, 철갑상어, 메추리, 왕개구리요리를 비롯한 각종 요리들을 만들어 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함.
- 또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동행한 지도간부들과 함께 옥류관 종업원들이 준비한 평양냉면을 맛보고, 평양냉면의 고유한 맛과 전통을 잘 살렸다고 평가했다”고 전함.
- 김기남·최태복·홍석형 당 정치국 위원 겸 비서, 김경희 당 정치국 위원 겸 부장, 강석주 당 정치국 위원 겸 내각 부총리, 장성택 당 정치국 후보위원 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양건·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 당 정치국 후보위원 겸 당 비서가 동행

■ 김정일동향

- 10/11 김정일, 중국공산당 대표단 접견·담화 및 오찬 주최(10/11, 중통·중방)
 - 김영일·김양건(黨비서, 담화 배석·오찬 참석), 강석주(내각 부총리)·장성택(국방총 부위원장) 등 오찬 참석
 - 석상에서 ‘주영강’은 중국공산당 중앙영도집단을 대표하여 黨대표자회의 성과적 진행과 김정일 黨총비서 추대, 黨창건 65돌 축하 및 ‘선물’ 전달



- 10/12 김정일, 黨창건 65돌경축 열병식에 참가한 지휘성원들과 기념촬영(10/12, 중통·평방)
 - 이영호(총참모장), 김정은(黨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영춘(인민무력부장), 주상성(인민보안부장), 김정각(총정치국 제1부국장),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 군중·병종사령관들을 비롯한 군대 지휘성원들, 박도춘(黨비서), 주규창(黨기계공업부장), 오일정(黨부장)등 참가
- 10/13 김정일, 중국·쿠바·라오스·우크라이나 등 여러 나라 당 및 국가 영도자들의 北 정권창건 62돌 축전에 대한 답전 발송(10/13, 중방)
- 10/17 김정일, 옥류관 현지지도(10/17, 중통)
 - 김기남·최태복·홍석형 당 정치국 위원 겸 비서, 김경희 당 정치국 위원 겸 부장, 강석주 당 정치국 위원 겸 내각 부총리, 장성택 당 정치국 후보위원 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양건·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 당 정치국 후보위원 겸 당 비서가 동행

■ 김정은동향

- 10/12 김정은, 黨창건 65돌경축 열병식에 참가한 지휘성원들과 기념촬영(10/12, 중통·평방)

■ 기타 (대내 정치)

- 黨창건 65돌 관련 “김일성의 부강조국건설 위업은 오늘 김정일에 의해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며 김정일 영도력 칭송(10/11, 중통)
- 黨창건 65돌과 黨대표자회를 “역사적 사변 등”으로 自祝하며 “김정일을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委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강성대국건설을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全民 총공격 독려(10/13, 중방·노동신문)
- 北 김영일 黨비서, 10.13 브라질 자유조국당 대표단과 담화(10/13, 중통)

나. 경제

● 北, 청진항 부두 ‘도문 부두’ 명명(10/11, 연합뉴스)

- 중국이 사용권을 확보한 청진항 부두에 대해 북한이 ‘도문(圖門. 중국명 투먼) 부두’로 명명한 것으로 알려진 것으로 보도
- 소식통에 따르면 “투먼에서 북한 남양을 거쳐 청진항을 통해 중국 남방이나 한국 부산으로 가는 화물 운송 항로를 국가 전략 사업으로 승격하는 등 북한이 중국과의 청진항 합작에 대해 적극적”이라고 전함.



- **北, 올해 식량 150만t 부족(10/13,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에 따르면,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가 최근 북한의 곡물 작황을 현지조사한 결과, 올해 식량 공급이 150만(총 수요의 21% 해당) 정도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함.
 - 북한에서 올해 어느 정도 식량이 부족할 것인지를 놓고 적게는 '50만~100만t'(통일부), 많게는 '130만t'(국내 민간연구기관)까지 다양한 관측이 나왔으나, 국제기구의 현지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된 것은 처음
 - RFA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WFP와 FAO조사단에 보고한 올해 곡물 수확량은 511만t으로 예상 수요(700만t)보다 무려 189만t이 적으며, 작년 11월 이후 곡물 수입량(30만8천t)을 감안해도 최소 150만t 정도 공급 부족이 예상
 - 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담당 대변인은 "9월21일부터 10월2일까지 WFP와 FAO가 북한의 협동농장들을 직접 찾아가 조사했다"면서 "이번에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늦어도 내달 초까지 북한의 올해 작황을 전망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말함.

- **北,청년동맹, 中지린성 방문…'경협 희망'(10/14, 중국청년보)**

 - 신문은 리용철 1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대표단이 중국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의 초청에 따라 3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12일 중국 지린(吉林)성을 방문했다고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대표단은 방중 이틀째인 13일 김일성 주석이 다녔던 지린의 위원(毓文)중학교와 베이산(北山)공원 등 혁명 유적지를 참관하고 창춘의 이치(一汽)자동차와 창춘열차회사, 육우 가공업체인 하오위에(皓月)그룹, 섬유 제조업체인 지린화셴(化纖)그룹 등을 시찰
 - 대표단은 산업 시설을 시찰한 자리에서 "우리 역시 중공업 육성을 국가 건설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다"며 "전통적 공업기지인 지린과의 경제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리용철 비서는 "북중 친선을 대대손손 전해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지린성을 방문하게 됐다"며 "양국 청년 교류를 확대, 북중 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함.

- **中 투먼, "北근로자 100명 고용키로"(10/14, 연합뉴스)**

 - 통신에 따르면, 빠르면 이달 중 북한의 기술 근로자 100명이 중국 투먼(圖們)에서 일하기 위해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복수의 소식통들에 의하면, 투먼시 경제개발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북중 합자회사인 연변(延邊)금추전자과학기술유한회사가 북한 무역성, 함경북도 해운구락부, 선봉무역회사 등과 북한 근로자의 파견 근무를 위한 노무 협약을 체결, 100명의 북한 근로자가 빠르면 이달 중 투먼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전함.
 - 북한 근로자들은 투먼 경제개발구 내에 건설된 '북한공업단지'에서



일하게 될 것으로 알려짐.

- 20만㎡ 규모의 북한공업단지는 투먼시가 대북 수출무역가공기지로 삼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이 단지 내에는 중국인 소유인 1만3천㎡ 규모의 발광다이오드(LED) 제조 공장이 완공을 앞두고 있음.
- 투먼의 한 소식통은 “북한 근로자들은 외부와 차단된 채 출퇴근하며 북한공업단지 내 LED 공장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며 “우선 100여 명의 북한 근로자가 들어오고 점차 고용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장 준공이 지연되는데다 고용 조건 등을 놓고 북중 간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북한 근로자 파견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전함.

● 北, 공식-비공식 환율 격차 10배(10/15, 블룸버그)

- 통신은 북한의 공식 환율과 시장의 비공식 환율이 10배 정도 차인다고 보도
- 통신은 “평양 창광거리의 양쪽에는 스탈린식 국가 엘리트와 자본주의적 사고의 주민 간 격차가 존재한다”면서 현지 경제상황의 단면을 소개
- 이 통신에 따르면 창광 거리에 있는 고려호텔에서는 외화로 하이네켄 맥주 등 외국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공식 환율이 1달러에 100원(이하 북한화폐 단위)이었지만 호텔 맞은편 사설 시장에서는 여성들이 방북 외국인에게 달러 가격을 보여주며 200원짜리 야채 찜빵을 팔고 있었는데 달러로는 20센트를 받았다고 함.
- 통신은 또 열병식 다음날인 11일 평양 시민들이 창광거리 시장에서 쌀 물건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을 목격했다면서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20원, 팥빙수가 5원, 고구마가 1kg에 60원이었다고 전함. 그러나 이곳에서 한 개에 1천700원 하는 소시지 등 상대적으로 비싼 물품을 구입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보도
- 통신은 그러면서 고려호텔에서는 달러나 유로, 위안화로 스카치 위스키, 시리아산 올리브유 등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평양 시내 거리에서는 포드의 신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아우디 스포츠카가 달리고 있었다며 대조적인 모습을 전함.

■ 기타 (대내 경제)

- “北, 청진항 부두 ‘도문 부두’ 명명”中 투먼시 “北과 호시무역 곧 개시”中, 라진이어 청진항도 확보..9월 개통(10/11, 연합뉴스)
- 제6차 평양 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10/18~21),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 예정(10/12, 중통)
- 北, 새로 개발된 흑연재료를 이용한 ‘전극’생산 성공으로 흑연공업 발전에서 성과 이룩(10/12, 중통)
- 北 단천마그네사공장의 국내연료에 의한 ‘경소마그네사생산공정’



새로 완공, 수입대체 효과와 생산성과 제품의 질 향상, 무공해 등 자랑(10/13, 중통)

다. 사회·문화

- **北, 사진공유 ‘플리커’ 사이트에서도 체제선전(10/11, 우리민족끼리)**
 - 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달 19일 플리커에 ‘uriminzokkiri’란 ID로 회원 등록을 한 뒤 지금까지 모두 26장의 체제선전 사진을 올렸음.
 - 가장 최근의 포스팅은 지난 8일 당창건 65주년을 이틀 앞두고 ‘일심 단결된 태양 조선의 국력을 만방에 떨친 승리의 불보라’라는 제목으로 불꽃놀이 사진 8장을 올린 것
 - 다른 사진들은 출근길, 수영장 등의 시민들 일상과 만수대 거리(평양 중심가) 정경, 만포시 야경, 천리마기업소 현장 등을 담은 것인데, 제목에는 하나같이 ‘행복의 웃음 넘쳐나는’, ‘황홀경을 펼친’, ‘사회주의 선경’ 같은 체제선전성 문구가 들어가 있었음.
 - 북한은 지난 7월14일 이후 ‘김정일화(花)’ 등 555건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고, 8월12일 계정을 연 트위터에는 지금까지 735건의 단문을 게시

- **외신기자들, 평양서 트위터도 했다(10/12, 워싱턴포스트(WP))**
 - 신문은 북한의 지도자와 후계자가 군 열병식에 참석했다는 제목으로 김정일-김정은 부자의 최근 공개적인 활동을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
 - WP는 특히 북한이 외국 언론에 전날 열린 군 열병식을 공개했다면서, 비록 북한에 취재차 입국한 외신 기자들이 짜인 일정을 따르고 공식적인 가이드가 기자들을 따라 다녔지만, 일요일 군 열병식 행사의 생중계도 허용했다고 전함.
 - 이 신문은 기자들이 머무른 고려호텔에는 프레스룸이 설치돼 있고, 인터넷 접속도 가능했다면서 이를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라고 묘사
 - 한 외신 기자의 경우 자신의 캐논 60D 카메라로 촬영한 김정일 스냅사진을 트위터 계정에 올려놓기도 했다고 전함.

- **평양은 특권도시·식량난 농촌과는 판판(10/13, 마이니치신문)**
 - 신문은 북한의 수도 평양에 대한 르포기사에서 현재 평양의 모습은 심각한 식량난과 전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지역과는 판판의 ‘특권도시’였다고 전함.
 - 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창건 65주년 기념행사 취재차 평양에 들어간 기자가 지난 11일 오후 8시 반 조금 넘어 평양 대동강변에 늘어선 한 식당에 들어가 봤더니 초라한 외관과는 달리 칸막이 객실



- 까지 갖춘 고급 레스토랑이었다고 함.
- 메뉴 가격표에는 구이용 모듬고기가 22달러, 고급 브랜드인 ‘헤네시-VSOP’가 100달러로 표시돼 있었지만 빈자리가 거의 없는 만석이었고 고객들의 가슴에는 김일성 배지가 달려 있었으며 대형 냉장고에는 수입 맥주와 식료품이 가득차 있었다고 함.
 - 시내 곳곳에서 압달라상이 눈에 띄었고 통제가 느슨하기 때문인지 외국인 기자가 말을 걸어도 피하지 않고 달러의 교환비율을 알려줬음.
 - 평양역 주변의 ‘신문’이라는 간판의 매점에서는 CD와 DVD도 취급하고 있었고, 매점 앞에서는 한 여성이 세발자전거 짐칸을 노점으로 토마토를 팔고 있었음. 토마토는 1kg에 200엔 정도
 - 수 십 명이 모여 있는 천막도 있었는데 이 곳에서 사람들은 1회당 북한돈 1천원(약 70엔)을 내고 제비뽑기로 간장, 식용유 등 생필품을 받아가고 있었다고 함.
 - 밤이 깊어졌는데도 평양역 앞의 빌딩 옥상에는 ‘조선의 심장 평양’이라는 네온사인이 빛나고 있었음. 지난 6월 중국에서 만난 북한의 한 농촌 출신 여성은 연간 며칠씩 수 시간에 걸쳐 전기가 끊기고 있다고 말했지만 평양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전함.
 - 북한은 지난 10일 열린 열병식에 외국기자 95명의 취재를 받아들였으며, 기자수가 너무 많아 손이 돌아가지 않았음인지 자유행동을 허용.
 - 기자가 밤 늦게 숙소인 고려호텔로 돌아오니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당국자는 “평양의 야경도 나쁘지는 않았을 겁니다.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함.
- **北 고위층 가족, 해외근무·장기체류 특혜(10/13,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식량난 등 생활고에 시달리는 북한의 일반 주민들과 달리 고위층 가족이나 친인척 가운데 상당수는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장기간 체류하며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전함.
 - 평소 북한 고위층과 연락하며 지낸다는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의 조카는 네팔 주재 북한 대사로 있다가 얼마 전 말레이시아 대사로 옮겼고, 강석주 내각 부총리의 조카는 현재 태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공관원으로 근무중
 - 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사위 박모씨와 김영일 당 국제부장의 사위 신모 씨는 같이 독일 주재 대사관에서 근무
 - 이들 특권층은 해외 근무를 하고 귀국해도 외무성, 무역성 등의 편하고 힘있는 자리에 배치되는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아들, 최영림 내각 총리의 딸, 리명수 국방위 행정국장의 조카, 리하일 인민군 차수의 사위 등이 그런 경우
 - 이들 특권층은 또 북한의 일반 해외 주재원과 달리 독립주택에 살면서 벤츠 차량을 굴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함.



- 평양 출신의 탈북자는 이 방송에 “김정일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측근들에게 최상의 대우를 해준다”면서 “이런 측근의 자녀들은 외국에 보내도 망명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김일성대학이나 국제관계 대학을 거쳐 외무성이나 무역성에 많이 배치되고 승진과 해외파견 시 특혜를 본다”고 말함.

● 평양서도 햄버거 인기…‘심야까지 장사진’(10/13,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블루진’과 함께 미국 문화의 상징으로 꼽히는 ‘햄버거’가 요즘 북한 평양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전함.
- 한 싱가포르 회사가 북한 당국과 계약을 맺고 개점한 ‘삼태성청량음료점’에서는 ‘다진 소고기와 빵’(햄버거), ‘구운빵지집’(와플) 등을 ‘평양사이다’나 ‘금성생맥주’ 같은 가벼운 음료와 함께 팔았는데, 올해 들어 개선청년공원유회장(일종의 놀이공원)에 분점을 내면서 햄버거 손님들로 연일 장사진을 치고 있음.
- 특히 놀이공원 분점의 경우 하루 24시간 문을 여는데도 전날 예약해야 겨우 햄버거 맛을 볼 수 있고, 예약을 받지 않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 시간대에도 사람들이 줄서서 기다리는 장면이 심심찮게 연출된다고 함.
- 한 평양 주민은 이 방송에 “처음에는 외국에서 햄버거 맛을 본 적이 있거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몇 명 찾는 정도였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면서 “비교적 가격도 저렴하고 내화(북한돈)와 달러, 유로, 중국 위안화를 모두 받아 웬만큼만 돈이 있으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전함. 또 이 주민은 또 “햄버거를 처음 맛본 사람은 특유의 느끼한 맛 때문에 별로 맛있다는 생각을 못한다”면서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 ‘세 번 먹으면 제 맛을 알고 다섯 번째부터 중독이 된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분위기를 전함.
- 한편 RFA는 ‘평안남도 간부’의 말을 인용, “삼태성청량음료점의 실소유주는 김경희(김정일 위원장 여동생.당 경공업부장)이고, 김경희의 측근 김경옥이 경공업부 부부장 직함을 앞세워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

● 北, 너무 불투명해 부패지수 측정 불가(10/14,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에 따르면, 국제투명성기구(TI)가 1995년부터 매년 발표해온 ‘국가별 부패지수 순위’에 한번도 오르지 못했던 북한이 16년째인 올해도 평가자료 부족으로 다시 누락됐다고 보도
- 이 기구의 차니타 리아노 프로그램 책임자는 RFA에 “전세계 국가의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부패 인지 및 청렴도를 조사해 반영하는 ‘부패지수 순위’에서 북한은 올해도 평가 자료 부족으로 제외됐다”면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도 해마다 이 명단에



포함되는데, 북한의 경우 지금까지 한번도 오르지 못했다” 함.

- 그는 이어 “올해 각국의 부패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세계은행, 프리덤하우스 등 13개 조사기관의 평가 자료를 참고했다”면서 “특정 국가의 부패지수를 산출하려면 최소한 3개 기관 자료가 필요한데 북한의 경우 2개 기관 자료밖에 구하지 못했다”고 설명
- RFA는 “이처럼 북한이 부패 순위에서 계속 누락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 사회의 불투명성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지적한다”고 말함.

● **요즘 북한은 외국 음란물 천지(10/15,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북한에서 외국산 성인용 음란물이 널리 퍼져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함.
- 방송은 북한 현지 소식통을 인용, “당국이 국산 DVD만 돌아가는 녹화기 생산을 늘리고 외국산 녹화기의 조종기판을 국산으로 교체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장마당에서 외국 음란물을 찾는 사람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
- 평안북도 소식통은 이 방송에 “장마당에 가면 밀수된 중국산 조종기판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집에서도 중국산 복사기만 있으면 DVD 복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외국 음란물이 널리 퍼져 요즘에는 녹화기가 있는 집이면 음란 DVD를 한두 장씩 갖고 있을 정도”라고 전함.
- 량강도 혜산시 주민은도 “요즘 장마당에서 가장 잘 팔리는 물건이 ‘색깔 영화’(음란물)인데 대부분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이런 음란물이 미성년자들에게도 급속히 퍼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
- 방송은 “북한에는 영상물 등급이 없고 성교육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음란물의 폐해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밝힘.

● **북한 체조단체팀 런던올림픽 출전 사실상 좌절(10/15, AP; AFP)**

- 북한 체조팀은 국제체조연맹(FIG)이 14일 북한 여자체조 선수의 나이 허위 기재와 관련된 재심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2012년 런던올림픽 출전이 사실상 좌절됨.
- FIG 항소위원회는 이날 FIG의 북한팀에 대한 국제대회 출전정지 조치를 재심한 결과 북한 측 설명이 출전금지 처분을 철회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청구를 기각
- 지난주 FIG는 북한 여자선수 홍수정이 16일부터 시작되는 로테르담 세계체조선수권 대회 참가신청 서류에 이전과 다른 생년월일을 기재했다는 이유를 들어 30일간 모든 국제대회 참가를 불허한다는 징계를 내림.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각계층 인민들, 黨창건 65돌을 맞으며 黨창건기념탑을 찾아 黨의 강화 발전에 쌓아올린 金父子 업적 回顧(10/12, 중통)
- ‘김일성화·김정일화’ 전시회 폐막식, 10.14 김기남(黨 비서)·양형섭(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안동춘(문화상)·김병훈(문예총 위원장) 등 참석下 진행(10/14, 중통)

2. 대외정세

가. 일반

- 北, 아프리카서 잇단 대형 조형물 공사(10/12, 연합뉴스)
 - 북한은 세네갈에서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상’을 건립한 데 이어 차드에서도 독립 50주년 기념물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세네갈 독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상 공사에는 총 160억 프랑 세파(한화 370여억 원)가 들었으며 북한의 만수대 해외사업부가 공사를 맡음.
 - 다카르 국제공항 인근 대서양 연안에 세워진 이 조형물은 성인 남자가 여자와 아이를 안은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높이가 50m로 미국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46m)보다 4m 더 높다고 함.
 - 기념상 제막식은 지난 4월 압둘라예 와드 세네갈 대통령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19개국 정상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으나 전망대 공사 등 마무리 작업이 늦어지면서 이달에나 일반인에 공개될 예정
- 北고관…“日총리 교체 잦아 대화 어렵다”(10/12 교도통신)
 - 통신은 북한 고위관리가 일본의 총리가 너무 자주 바뀌어 누구와 대화를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 이 통신은 북한의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식 참석차 평양을 방문하고 귀국길에 오른 프로레슬러 안토니오 이노키씨가 이날 경유지인 베이징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함.
 - 이노키씨에 따르면 평양에서 만난 고위관리는 “일본의 총리가 자주 바뀌어 북·일 관계와 관련 누구와 진지하게 대화를 할수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일본의 의원단이 방문하면 환영하겠다”고 말했다고 함.
- 北 김계관 방중…6자회담 재개논의할 듯(10/12, 연합뉴스)
 -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12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김 부상이 승진 후 처음으로 베이징을 방문



한 것으로 안다”며 “일단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 반도 사무 특별대표를 만날것으로 예상된다”고 확인

● 北, 日 대북정책 비난…유연한 대처 촉구(10/12, 교도통신)

- 통신은 납북자와 핵, 미사일 등 문제를 포괄적으로 풀겠다는 일본 정부의 대북정책을 북한이 정면으로 비난하면서 유연한 대처를 촉구했다고 보도
- 북한의 송일호(宋日昊.56)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담당 대사는 통신과 인터뷰에서 “과거 자민당 정부가 포괄적 접근이라는 잘못된 대북정책을 입안했기 때문에 북·일 관계가 개선되지 못했다”고 말함.
- 송 대사는 또 “민주당 주도의 새 정부 역시 이런 (자민당의) 정책을 따르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양국) 관계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 특히 송 대사는 “현재 국면은 일본이 납치 문제에 납치된 상황”이라고 비꼬기도 했으며 양국이 관계를 강화하고 신뢰를 쌓으면 일본 국민이 가진 납북자에 관한 의문은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면서 일본 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
- 이어 “우리는 납치 사실을 시인했고 이를 해결하고자 가능한 모든 조치를 했다”며 “그러나 일본은 의혹만 키우며 양국 사이에 온갖 장벽들을 만들었다”고 비난
- 그는 핵 문제와 관련 유엔이 대북 제재를 우선 해제해 북한이 평등한 입장에서 6자 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함.
- 한편, 송 대사는 이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열정적으로 나라를 지도하고 있지만 “혁명 달성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며 김 위원장의 삼남 김정은이 후계자라는 사실을 확인
- 통신에 따르면, 그는 특히 김정은을 노동당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은 세대를 뛰어넘는 혁명 위업 완수를 원하는 당(黨)과 군(軍), 인민의 뜻이 투영된 것이라고 소개했다고 전함.

● 中國방부장, 중-북 전통우의 강조(10/15, 연합뉴스)

- 중국의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은 14일 북한의 변인선 인민무력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군 친선참관단을 맞아 양측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협력을 고위급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
- 량 국방부장은 이날 굳게 다져진 양측의 깊은 우호협력 관계를 거론하며 “중국과 조선은 오랜 세월 상호존중하면서 서로 도왔다”고 강조.
- 또 량 부장은 중국과 북한이 자신의 발전을 촉진하고 공동이익, 지역 평화와 안정을 지킬 임무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이 북한과 교류를 강화하고 양측 정부와 군 사이의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보도
- 이에 변인선 부부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우호 협력을 증대하



- 기를 원한다며 양측의 뒷세대 지도자들이 쌓은 우의를 높이 평가함.
- 변인선은 북한군 참관단이 방중 기간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이룬 성과와 군사적 발전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전함.
- 중국인민해방군 초청으로 방중한 북한군 참관단은 남부 윈난(雲南) 성도 시찰할 예정임.

● **北, 美정부 접촉 끊기자 민간에 대화 손짓(10/15, 미국의 소리(VOA))**

- 방송은 북한이 미국 정부와 다시 접촉하기 위해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을 잇따라 초청하고 있다고 전함.
- 방송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 “수전 셔크 전 미국무부 차관보와 토니 남궁 뉴멕시코 주지사 수석고문이 지난달 북한을 방문했고, 추가로 11월 말까지 최소한 4개의 민간 방문단이 북한의 초청을 받아 방북할 예정”이라고 밝힘.
- 한 외교 소식통은 VOA에 “북한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미국의 민간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것은 미국 정부와 다시 접촉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신호”라면서 “과거에도 그랬듯이 북한은 미국의 민간 전문가들을 통해 북핵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함.

● **北김계관, 오늘 고려항공편 귀국할 듯(10/16, 연합뉴스)**

- 중국을 방문 중인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16일 고려항공편으로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지난 12일 방중한 김 부상은 도착 당일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만나 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
- 통신에 의하면 김 부상은 또 13일에는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 들어간簾>) 외교부장을 면담했으며 우다웨이 특별대표와 한차례 더 회동한 것으로 전함.

■ **기타 (대외 일반)**

- 김영남, 10.7 적도기네 독립 42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10/11, 중통·중방)
- 중국 홍콩보황위성TV, 北 당창건 65돌 즈음 김정일에게 선물(10/11, 중통)
- 김기남(黨비서), ‘비슈아나스’(주체사상국제연구소 이사장) 등 訪北 각국 및 지역의 주체사상연구조직 대표단 단장·대표들과 담화(10/11, 중방)
- 김영일(黨비서), ‘이노끼 간지’ 일본 이노끼게놈연합주식회사 회장 일행 과 담화(10/11, 중통)
- 평양기계대학, 10.11 에콰도르 ‘루이스 바르가스 토레스 에스메랄다스기술종합대학’과 “친선 및 과학교류 협조에 관한 합의서” 조인(10/11, 중통)



- 방순철(평양기계대학 원장), 서호원(北-에콰도르친선협회 위원장) 등 참가(10/11, 중통)
- 주북 러대사, 10.12 러-北 외교관계 설정 62돌 관련 대사관에서 연회(10/12, 중통·중방)
- 최영림 내각 총리, 스웨덴 再任 ‘프레드릭 라인펠트’ 수상에게 10.12 축전(10/13, 중통)
- 리명철 가봉 駐在 北대사, 10.6 駐在國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출(10/14, 중방)
- 北 黨대표단(김영일 黨 비서, 리영철 黨 부부장), 10.14 헝가리 공산주의 노동당대표단과 평양에서 회담(10/14, 중통·중방)
- 김영남, 10.14 駐北 인도네시아 대사 ‘나스리 구스따만’ 신임장 접수(10/14, 중통)

나. 6자회담(북핵)

● 北김계관, 중국에 9.19성명 이행용의 표명(10/15, 연합뉴스)

-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중국 정부에 비핵화 원칙을 담은 2005년 9.19공동성명을 이행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 외교소식통은 이날 중국측이 김 부상과 협의결과를 한국 정부에 사후 통보한 내용에 대해 “김 부상이 방중 기간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하고 9.19공동성명을 이행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며 “중국은 북한의 태도가 여러가지로 전보다 나아졌다고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함.
- 그러나 이 소식통은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는 것도 그동안 계속 해왔던 말이기 때문에 북한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부연했고, 김 부상이 중국측과 천안함 사건을 논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보도

● 北외무성, ‘9.19공동성명 이행의지 불변’(10/16,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중국 방문과 관련,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6자회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려는 우리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함.
- 대변인은 이날 김 제1부상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의 초청에 따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방문하여 조·중(북중)관계와 6자회담 재개, 조선반도와 지역정세 등 문제들을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토의했다”며 이같이 말함.
- 이어 “우리는 6자회담 재개에 준비되어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일부 참가국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서 서두르지 않고 인내성 있게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덧붙임.



3. 대남정세

- **남북, 금강산서 신계사 복원 3주년 법회(10/13,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남·북 불교계가 13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사찰 복원 3주년 합동법회를 개최했다고 보도
 - 통신은 “합동법회에는 북측에서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 교직자와 금강산 신계사 승려, 신자가 남측에서 불교 조계종 승려, 신자가 참가했다”며 “연설자들은 합동법회를 봉행하게 된 것은 북남공동선언들을 고수·이행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길에서 서로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려는 북남 불교도의 통일의지의 발현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힘.
 - 통신은 “합동법회에서는 금강산 관광과 신계사로의 참배길을 열어 나가고 북·남관계를 개선해 나라의 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실천행에 적극 펼쳐나서려는 북·남불교도들의 결의를 담은 공동발원문이 봉독됐다”고 덧붙임.
 -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스님 등 5명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금강산 지역에서 북한에 대북수해지원용 쌀 30t을 전달하고 법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짐.

- **北, 황장엽 前비서 장례일에 “하늘이 내린 저주”(10/14, 우리민족끼리)**
 - 이 사이트는 ‘배신자의 운명’이란 논평에서 황 전 비서를 ‘황가 놈’이라고 부르며 “유례없는 고난의 시절이 닥쳐오자 우리 당과 제도를 등지고 혈불이(피불이)들까지 다 버린 채 일신의 향락과 안일을 찾아 남쪽으로 뺄소니쳤던 자”라면서 “일점 혈육도 없는 타향의 차디찬 곳에서 누구도 모르게 명줄이 끊어졌으니 이보다 비참한 최후가 어디에 있겠느냐”고 주장
 - 이 사이트는 또 황 전 비서가 북한의 당 창건 65주년 기념일에 세상을 떠난 것과 관련, “세계가 지켜보는 평양에서 당 창건 65돌을 맞는 환희와 감격이 터져오르고 선군 대오의 발구름 소리가 진감하는 시각이었다”면서 “하늘도 이 날을 보라고 살려둔 운명이었던 것 같다”고 주장

- **北, 황 前비서에 온갖 욕설…두 차례 비난글(10/14, 우리민족끼리;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황前비서의 죽음에 대해 독설을 퍼붓는 글을 두 차례나 올림.
 - 통신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오후 3시께 첫 번째 비난글을 올렸다가 20분 만에 내린 다음 4시간40여분 뒤에 훨씬 비난 강도가 세지고 험한 욕설이 동원된 글을 다시 올림.
 - ‘천벌을 받은 인간추물의 비참한 종말’로 제목이 바뀐 두 번째 글은



“황가놈의 급사는 하늘이 내린 천벌이며 조국과 인민, 민족을 반역한 변절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 강도를 높임.

- 또한 당 창건 65주년 기념일인 지난 10일 황 전 비서가 세상을 떠난 것을 겨냥, “세계를 진감(진동)시킨 평양에서의 지난 9월의 역사적 사변과 10월의 우렁찬 발걸음 소리, 폭풍같은 만세환호성에 북통이 터지고 심장발작을 일으켜 황천객이 됐을 것”이라며 주장
- 이어 황 전 비서에 대한 훈장 추서와 국립현충원 안장에 대해 “눈 뜨고 볼 수 없는 꼴불견의 광대극”이라고 덧붙임.

● 北, “금강산 당국회담 하루빨리 갖자”(10/14, 연합뉴스)

- 통신은 통일부의 보도를 인용, 금강산관광 실무를 총괄하는 북측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이날 오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인편으로 금강산 관광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하루빨리 가질 것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보도
- 북측은 앞서 지난 2일 “금강산지구 우리 측 부동산 문제와 관광재개 문제와 관련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15일 개성에서 갖자”고 제의
- 이날 북측의 회담 조속개최 촉구는 우리 측이 12일 “남북적십자회담(26~27일)과 이산가족 상봉행사(10.30~11.5일) 일정 등을 감안해 추후 우리 입장을 알리겠다”고 통보한 데 대한 반응으로 보임.
- 북측의 조속한 회담 촉구에도 우리 측은 이미 북측에 알린 대로 “회담 여부에 대해 추후 통보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금강산관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간 회담이 열려도 이산가족 상봉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

● 北, 심리전방송-전단살포 ‘물리적타격’ 위협(10/15,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은 “남측이 대북 심리전방송과 반공화국 빼라(전단) 살포행위를 중지시키지 않으면 방송수단과 빼라살포 지점에 대한 우리 군대의 물리적 타격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
- 통신은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은 이날 남측에 전달한 항의통지문에서 “우리는 긴장 격화를 바라지 않지만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행위나 그 어떤 사소한 도발행위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 북측 단장은 이어 “최근 남측 국방부 장관은 공개석상에서 대북 심리전방송의 주파수 변경에 따른 라디오 살포와 대형전광판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는 우리에게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이고 용납 못할 또 하나의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
- 그는 또 “남측의 태도 여하에 따라 우리 군대의 대응방식이 달라지게(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면서 “남조선 괴뢰들은 우리 군대의 대응방식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변



● 北신문, PSI훈련에 “노골적인 선전포고”(10/16,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신문은 북한이 한국이 주관하는 첫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이 13~14일 부산에서 실시된 것과 관련, “우리(북)에 대한 공공연한 군사적 도발이며 노골적인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신문은 이날 ‘대화와 평화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해상봉쇄는 전시에나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절대로 스쳐 지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유린하고 침해하는 날강도적인 적대행위가 가져올 것이란 군사적 충돌과 북남관계의 악화뿐”이라고 강조
- 이어 “지금 북과 남에 필요한 것은 총포소동이 아니라 관계개선을 추동하기 위한 대화의 분위기”라며 “북남관계의 파국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것은 남조선 당국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고 덧붙임
- 한편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이날 미국에서 열린 제42차 한미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핵 확장억제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북한의 불안정 사태 등에 대한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한 데 대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만약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모든 물리적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무자비한 정의의 보복타격으로 침략의 본거지를 송두리째 날려 보낼 것”이라고 주장

■ 기타 (대남)

- 南 정부는 파국에 처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북남공동선언들의 고수 이행 △連北 화해정책 전환 △북침전쟁연습 중단 등을 실현하여 “대화와 평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10/12, 평방)
- 정부의 ‘9.28 서울수복행사’ 관련 “동족에 대한 대결분위기를 조장하는 정치적 도발”로 持續 비난 및 南 당국은 “우리(北)의 제안(이산가족상봉 등)에 호응해 對北정책을 전환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것” 촉구(10/12, 중방)
- 統一部長官의 남북통일 관련 해외발언(독일통일 경험을 토대로 통일준비 등) 관련 “南당국이 ‘체제통일’ 야망을 계속 추구한다면 남북관계는 파국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비난(10/13, 중통·노동신문)
- ‘제42차 韓美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결과(공동성명 등) 관련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전쟁모의”라며 “우리(北)는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며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10/14, 중통·노동신문·민주조선)
- 我軍의 ‘2010 육군정책보고서’ ‘주적’ 표현은 “동족대결”이라며 “시대착오적인 ‘주적론’을 고집하면서 북남대결을 격화시키는 데 대해 절대로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豪言(10/14, 중방)
- ‘民主平統’ 수석 부의장의 對北정책 海外강연회 발언(北이 핵을 가



지고 있는 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등) 관련 “최근 남북간 일련의 긍정적 움직임(적십자 실무접촉 등)에 찬물을 끼얹는 망언”이라고 비난(10/14, 평방)

- “조국통일3대원칙은 가장 정당한 통일원칙”으로 조국통일 실현에서 “연방제방안보다 더 좋은 방안은 없다”고 持續 주장, 선동(10/14, 중통·노동신문)
- 北 축구팀, 10.14 한국팀 상대 2:0 승리(“2010 아시아 19세미만 축구 선수권대회’ 4강전) 및 결승 진출 보도(10/15, 중방)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태도 바꾸는 北..6자회담 재개 탐색전 본격화>(10/17)

- 북핵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관련국들의 탐색전이 본격화되고 있음. 아직껏 회담재개의 여건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분위기이지만 제각기 재개의 해법을 놓고 서로의 수(數)를 타진해보는 국면이 조성되고 있음. 평양이 그 시발점이 되고 있음.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베이징 방문을 계기로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향한 전향적 시그널을 공개리에 발신하기 시작한 것임. 선(先)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이행조치를 주문하고 있는 한·미의 공동 압박전선에 대한 일종의 ‘응수’에 나선 셈임.
- 김 부상의 방중에 따른 북·중 협의의 결과물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핵심은 ‘유연해진 북한’으로 평가됨. 기존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6자회담 재개를 겨냥해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려는 북한의 태도를 보여 주려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석됨.
- 김 부상이 지난 15일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행한 발언이 태도변화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음. 김 부상은 “9.19 공동성명을 이행할 준비가 돼있다”며 “(제재해제를 위한) 방법을 찾으면 있을 수 있음. 서로 접촉을 활성화해 나가자”고 말했음.
- 김 부상의 9.19 공동성명 이행 준비 언급 자체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한·미가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 조치 주문에 대해 일종의 ‘답’을 내놓은 것으로 보임.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곧바로 이튿날인 16일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려는 우리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되풀이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임. 외교가가 주목하는 또다른 언급은 “제재해제와 관련해 방법을 찾자”는 것임. 이는 그동안 회담복귀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제재 해제문제에 대해 북한이 일정한 양보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임.
- 이 같은 북한의 태도변화 징후를 근거로 6자회담의 장(場)을 세우려는 중국은 앞으로 6자회담 재개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 가능성이 점쳐짐. 중국으로서는 이번 북·중 협의를 계기로 북한의 태도가 변화했다고 평가하며 회담재개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임. 그러나 현재 관련국 내부의 분위기로 볼 때 평양발 6자회담 재개흐름이 과연 호응을 가져올 수 있을 지를 놓고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음. 무엇보다도 한·미가 유화공세의 이면에 도사린 북한의 ‘저의’



- 에 대해 불신을 보이고 있는데다 중국의 중재역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은 분위기임.
- 특히 정부내 일부 당국자들은 김 부상이 중국 방문과정에서 내놓은 언급들에 대해 평가절하하며 과도한 의미부여를 경계하고 있음. 김 부상의 9.19 공동성명 이행 언급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비핵화를 이행하려는 명료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임. 특히 9.19 공동성명은 비핵화 이행 뿐 아니라 평화협정 내용도 들어가있어 북한이 ‘선(先) 평화협정’ 주장을 활용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음.
 - 또 “제재 해제를 위한 방법을 찾자”고 언급한 것은 결국 북·미간 접촉의 명분을 마련하고자 하는 저의가 깔려있을 것이라는 게 당국자들의 분석임. 정부 소식통은 “현단계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전에 북·미간 접촉은 어렵다”며 “제재 해제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음.
 - 하지만 이 같은 북한의 태도변화 징후와 이를 근거로 한 중국의 중재 움직임은 점진적으로 회담 재개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임. 특히 북한의 최근 행보는 내부 권력승계의 ‘연착륙’과 경제난 해소 차원에서 대외관계의 정책적 변화를 꾀하려는 북한 수뇌부의 의지가 반영돼있다는 점에서 정세의 흐름에 따라서는 ‘가시적 액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임. 외교가 일각에서는 한미의 요구를 의식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핵시설 모라토리엄 선언과 같은 상징적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옴.
 -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움직임은 내부적 절박성 때문”이라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지를 놓고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음.
 - 이에 따라 북한이 일정한 시점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상징적 조치를 취하면서 회담재개를 촉구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한·미도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6자회담 재개 흐름은 마치 ‘압축파일’이 풀리듯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옴.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16일 “9월 이후의 화해공세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조선(북한)이 항상 놓칠 수 없는 과제로 간주해 온 것이 북남관계 발전”이라고 언급한 대목은 최근 한·미의 ‘남북관계’개선 주문과 관련해 주목할 대목임.

● <한·미·중·일·러 5자대표 오늘 서울서 회합>(10/17)

- 한·미·중·일·러 5개국의 6자회담 차석대표 또는 관련 당국자들이 17일 저녁 서울에서 모일 전망이다. 외교소식통은 “18일부터 개막하는 제21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를 앞두고 5자 대표들이 이미 방한했거나 오늘중 방한할 예정”이라며 “오늘 저녁 만찬 리셉션을



- 겸한 비공식적 회합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 5개국 정부 대표로는 우리측에서 김홍균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미국측에서 성김 미국 6자회담 특사, 중국측에서 양허우란(楊厚蘭) 6자회담 차석대표 겸 한반도 담당대사, 일본측에서 이시 마사후미 일본 총합정책국 대사, 러시아측에서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러시아 6자회담 차석대표가 참석함. 이들은 18일부터 이틀간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산하 세계분쟁협력연구소(IGCC)와 외교안보연구원 이 공동 주최하는 NEACD에 참석하게 됨.
 - 지난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의 6자회담 관련 당국자들이 회동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 내부 권력승계 등 한반도 정세변화와 6자회담 재개를 놓고 폭넓은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최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베이징 방문을 계기로 북·중이 6자회담 재개에 적극성을 보이는 흐름 속에서 5자간 회동이 이뤄지는 것이어서 회담재개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IGCC 수전 셔크 소장과 김홍균 평화외교기획단장은 NEACD 회의가 끝난 뒤 19일 오후 외교안보연구원에서 내.외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임. 북한은 이번 NEACD의 초청대상국이나 지난 2005년 서울에서 열린 16차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도 불참함.

● 北외무성 “9.19공동성명 이행의지 불변”(10/16)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6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중국 방문과 관련,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6자회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려는 우리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대변인은 이날 김 제1부상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의 초청에 따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방문하여 조중(북중)관계와 6자회담 재개, 조선반도와 지역정세 등 문제들을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토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6자회담 재개에 준비되어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일부 참가국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서 서두르지 않고 인내성 있게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김 제1부상은 방중 첫날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만나 회담 재개방안을 논의했으며 13일에는 양제츠 외교부장을 면담하고 우다웨이 특별대표와 한차례 더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음.
- 그는 15일 베이징 국제구락부 앞에서 외신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 “9.19공동성명을 이행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 라이스 “6자회담, 北 권력이양 도움줄 것”(10/15)

-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6자회담이라는 구조가 북한의 권력이양 문제를 관리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 라이스 전 장관은 이날 MSNBC방송에 출연,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 시절 6자회담을 발족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미국이 공조하는 구조는 심지어 북한의 권력이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6자회담을 통해 자신이 흡족하게 생각할만한 진전은 이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 라이스는 크리스토퍼 힐 전 동아태 차관보와 호흡을 맞춰가면서 부시 행정부 2기 후반에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 약속까지 받아냈으나, 막판 핵검증 문제의 벽에 부딪혀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다.
- 또 라이스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문제와 관련,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 체결한 FTA를 (의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언급한 점은 매우 좋은 일”이라며 “미국의 일자리는 지금까지 수출을 통해 창출돼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라이스는 “미국의 재계는 FTA가 없다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점점 이해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스스로 너무 과보호하고 있다”고 말해 한미FTA 등에 대한 조속한 의회 비준동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 中 “北-中 6자회담서 건설적인 제안했다”(10/14)

- 중국 외교부의 마자오쉬(馬朝旭) 대변인은 14일 “북중간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 북한에 회담 재개를 위해 건설적인 제안했다”고 밝혔다.
- 마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3단계 방안과 관련해 입장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중조(북중) 관계와 조선반도 정세, 6자회담 등의 공통의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마 대변인의 이 발언은 그동안 ‘북·미 접촉→6자 예비회담→6자 본회담’의 3단계 수순을 거쳐 6자회담을 재개하지는 입장이었던 중국이 한·미·일 3국 모두 그 제안에 반대하는 상황에 직면하고서 입장 변화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나온 것임.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12일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같은 날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과 회담했으며 둘째날인 13일 양제츠 외교부장을 면담했다.
- 마 대변인은 “한반도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비핵화를 목표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화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지는 것으로, 중국은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유관 당사국들과 각 방면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 대변인은 그러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유관 당사국들의 공동 노력을 희망한다”고 덧붙였음.

- 마 대변인은 북한에서 김정은 후계구도 문제와 관련해 “어디까지나 조선(북한) 내부의 문제로, 중국은 새 영도기구(지도부) 건설에 축하했고 조선의 각 사업이 부단히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음.

● “美, 압력에 초점 맞춘 투트랙 지속” <전문가>(10/14)

- 미국의 한반도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3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현 대북정책 기조를 “압력에 더욱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 투 트랙(대화와 제재) 정책”이라면서 당분간 이 같은 정책이 계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음.
- 클링너 연구원은 이날 저녁 코리아클럽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미국이 6자회담 재개에 동의하기 이전에 2가지를 전제조건으로 계속 요구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음. 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재개할 진정한 의사가 있다는 가시적인 증거”와 “천안함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한국의 요구를 북한이 만족시키는 것”이 두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 그는 또 다른 사람들의 전언임을 전제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다음으로 다른 어떤 문제보다 더 많이 북한과 관련한 장관급, 부장관급 회의가 (열리고) 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의 대북정책 결정과 토론이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 美합참의장 “北, 핵기술 최고 확산국” (10/14)

-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에 대해 “전세계에서 핵무기 기술의 최고(number one) 확산국”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3일 (현지시간) 전했다. 멀린 의장은 이번 주말 방송될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핵문제와 관련, 북한과 이란간의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란은 전략적으로 핵무기 획득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란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제재가 “이란인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의미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 그는 “우리는 이란의 관심을 끌고 그들이 (대화)테이블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압력을 계속 가증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 <WMD 적재 의심선박 차단 PSI훈련 종료>(10/14)

- 한국이 주관하는 첫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인 ‘동방의 노력 10’이 14일 종료됐음.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도상훈련에 이어 이날 오전과 오후 부산 인근 한·일 중간수역에서 실시된 해상차단훈련은 대량살상무기(WMD)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선이



대한해협을 통과해 적성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를 유엔으로부터 입수하는 것으로 시작됐음. 우리 정부는 유엔의 요청을 수용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미·일 연합전력으로 해상차단작전을 수행할 것을 결정했음. 이어 한국 해군 구축함(4천500t급)인 대조영함과 충무공이순신함 등 2척과 지원함 2척, 해경 경비정 3척을 비롯해 미 해군의 이지스함인 USS라센(DDG-82.9천t급),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이소유키(3천50t급), 이사유키(2천950t급) 등 2척 등이 부산항에서 전술토의를 했음.

- 이때 해군 초계기(P-3C)가 공중에서 적성국 상선을 발견하고 해군 작전사령부와 해경에 상선의 항로와 속력, 대한해협 통과 예상시간 등을 전파했음. 부산항에 대기 중이던 연합전력이 현장으로 긴급 출동해 상선에 대해 목적지와 화물적재 목록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통신검색을 시작했음. 그러나 이 상선은 이를 거부하고 항해를 계속 하자 연합전력이 상선을 따라붙어 차단기동을 하면서 승선 검색에 응할 것을 요구했음.
- 상선이 속력을 줄이자 해상 검문·검색 특공요원들로 구성된 연합 검색반이 배에 올라 WMD 적재 물품을 발견하고 출항지로 복귀할 것을 요구했음. 상선은 항로를 바꿔 출항지로 기동을 했고 대한해협을 빠져나가자 훈련은 막을 내렸음.
- 국방부 관계자는 “해상차단훈련은 핵이나 WMD 의심물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정선하고 검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훈련 시나리오가 북한 등 특정국가를 겨냥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PSI에 옵서버로 참여한 이후 작년 10월26~30일 싱가포르에서 실시된 역외 PSI 해상차단훈련에 처음 참가했으며, 이번에 훈련을 처음으로 개최했음.

● 中·日 6자회담 대표, 베이징서 회담(10/13)

- 일본 측 6자회담 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중국을 방문해 우다웨이(武大偉) 6자회담 수석대표와 회담했다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음.
- 사이키 국장은 이달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의 기회를 이용해 중일 정상회담을 여는 문제를 중국 측과 협의하고,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키 국장은 협의 후 일본 언론에 “브뤼셀에서 열린 일중(중일) 정상 대화의 결과를 고려해가며 논의했다”고 말했다.
- 우다웨이 수석대표는 이날 사이키 국장과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인정했고, 중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젠가) 열리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키 국장의 이날 방중은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베이징을 방문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음.



● 한국 주도 PSI 훈련, 부산 앞바다서 실시(10/13)

- 한국이 주관하는 첫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인 '동방의 노력 10'이 13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부산에서 실시됐음. 이번 훈련은 북한의 천안함 어뢰공격에 대한 대응조치로 독자적인 PSI 해상차단훈련 뿐 아니라 역외 해상차단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임. 훈련 첫날인 이날 오전 9시부터 류제승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과 엘리슨 가필드 미 국방부 PSI 담당과장을 비롯해 한국,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캐나다 등 14개국 대표들이 참가하는 세미나가 부산 롯데호텔에서 비공개로 열렸음.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해상에서의 분쟁시 대응방안’을 주제로 14개 참가국 대표들이 발표하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참가국은 각자의 PSI 의사결정체계를 소개하고 PSI 정책과 해상차단 절차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음.
- 세미나와 함께 참가국들은 사전협의 형식의 도상훈련을 진행했음. 도상훈련에서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정보 분석, 해상 차단 활동시 고려 요소 식별, 검색과 차단, 지원 주체 세력 등을 결정했음.

● 우다웨이 “北 6자회담 재개에 긍정적”(10/12)

-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는 12일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 우다웨이 특별대표는 이날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음.
- 그는 “북한이 회담 재개에 긍정적이라고 느꼈다”면서도 ‘언제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도 아직 모른다”고 답했음.

● 北 김계관 방중..6자회담 재개논의할 듯(10/12)

-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12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했음. 김 부상은 이날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해 주중 북한대사관이 제공한 차량 편으로 공항을 빠져나갔음. 최근 북한의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부총리로 승격되면서, 김계관 부상이 제1부상으로 승진한 탓에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교체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 부상의 방중이 이뤄져 주목됨.
- 이번에 리용호 외무성 참사가 부상으로 승진하면서 그가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김 부상이 승진 후 처음으로 베이징을 방문한 것으로 안다”며 “일단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확인했음.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김 부상이 우다웨이 특별대표를 포함한 중국 측 6자회담 라인을 잇따라 면담할 것으로 보고 있음.



-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하고, 비핵화를 위해서는 회담이 재개돼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 그는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와 핵시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수준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음. 또 6자회담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이 한국, 미국, 일본과 같은지를 묻는 질문에 “유사하다”며 “그 동안 한·미, 한·미·일 협의를 기반으로 중국, 러시아와도 협의의 외연을 넓혀왔음. 오늘 협의에서 입장이 근접하다고 느꼈다”고 강조했다.
 - 그는 6자회담과 천안함 사건의 연계성에 대해선 “그 문제를 6자회담 재개에 걸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천안함 사건에 대한 요구사항이 내려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북핵문제 협의(10/11)

-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날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한 알렉세이 바라다브킨 러시아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과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가졌음. 위 본부장과 바라다브킨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교착상태인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음.
- 또 김정은으로 후계구도가 공식화된 북한의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라다브킨 차관은 12일에는 김성환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뒤 김재신 차관보와 제11차 한·러 정책협의회를 통해 수교 20년을 맞아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내달 예정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준비과정을 점검할 예정임. 외교부 관계자는 “바라다브킨 차관은 방한 기간에 우리측 정부 당국자들과 양자관계 및 지역문제 협력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며 “유익한 협의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미·북 관계

● 美 “대화유도 위한 대북제재 해제 없다”(10/16)

- 미국은 15일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해제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을 방문중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제재가 계속되는 속에서 6자회담에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제재는 매우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계속 준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음. 그는 이어 “우리는 대화를 위한 미끼로서 그런 제재를 해제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북한 근로자의 중국 파견 근로는 북중간 새로운 경제 협력 모델임. 중국은 값싼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화폐 개혁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은 개성공단과 유사한 또 하나의 외화벌이 길을 뚫을 수 있어 정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이에 앞서 투먼시는 지난 13일 양국 접경지역 주민들이 통행증만으로 자유롭게 출입하며 무관세 교역을 할 수 있는 호시(互市)무역 시장도 개설했음. 투먼 해관(海關) 부근에 마련된 이 시장을 이용하는 양국 주민들은 1인당 8천 위안(134만 원) 이하의 상품 판매에 대해 관세가 면제됨. 연변일보는 개장 첫날인 13일 150명의 투먼 주민이 남양에 가서 해산물과 토산물을 구매했으며 북한에서는 100t의 냉동 오징어가 반입됐다고 보도했음. 북한이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호시무역 시장은 파격적인 무관세 혜택에 따라 점차 북중간 대표적인 교역창구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 투먼은 동해 진출을 위한 북한과의 협력에도 적극적임. 지난 6월 청진항 3, 4호 부두의 15년 사용권을 확보한 투먼은 북한과 협력해 투먼-청진 구간 170km의 철도 보수 공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철로를 운행할 화물열차 200량과 화물 운송에 사용될 40t 규모의 컨테이너, 청진항 화물 선적에 쓰일 대형 크레인의 제작도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음.
- 청진항 3, 4호 부두의 보수공사 역시 마무리 단계여서 투먼-청진 루트를 이용한 동해 항로는 다음 달 시험 운항을 거쳐 올 연말 본격 운항할 예정임. 투먼시는 우선 투먼-청진-부산으로 이어지는 컨테이너 화물 항로를 운항하고 점차 중국 남방지역으로 항로를 다변화할 계획임. 투먼은 두만강 하류의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과 접해 있으며 북한 라진항과 연결되는 훈춘(琿春)에 비해 뒤늦게 대북 경협에 뛰어들었음.
- 2008년 중국이 라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들어 훈춘-북한 원정리 간 두만강 대교의 대대적인 보수에 나서고, 북한도 지난 1월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 경제자유무역지대로 육성하려는 의욕을 보이면서 ‘훈춘-라진’ 루트가 북중 경협 핵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었음. 그러나 라진항 부두 사용권 확보 조건으로 중국이 약속한 원정리-라진간 고속도로 건설이 통행료 분배를 둘러싼 북중간 갈등 때문에 지지부진해지면서 훈춘-라진 경협 루트가 가동되지 않는 사이 투먼은 청진항 사용권 확보는 물론 호시무역과 북한 근로자 고용 등 대북 경협 방안들을 구체화하면서 ‘대북 경협 1번지’로 급부상했음. 지난 8월 중국 동북지역을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투먼-남양을 통해 귀국길에 오른 것도 북중 경협 벨트를 시찰하려는 의도 아니었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북한이 이 투먼-남양-청진 경협 벨트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임.
- 이와 관련 중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라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중국에 부여하긴 했지만 규모가 큰 3, 4호 부두 사용권을 이미 러시아



넘긴 만큼 중국에는 청진항 개발을 맡기려는 게 북한의 의도”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 이샤오준(易小准)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지난달 1일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열린 ‘다투먼(大圖們) 제안회의’에서 중국 동북지역 일대에 ‘초국경 경제협력지구’ 건설 구상을 밝힌 것 역시 투먼 일대에서의 대규모 북중 경협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투먼시는 현재 1만㎡ 규모에 불과한 호시무역 시장을 연차적으로 확대, 100만t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세창고와 물류 정보센터 등을 두루 갖춘 1.36km²의 대규모 시장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 부부장이 밝힌 초국경 경제협력지구 건설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설명임.

● 中國방부장, 중-북 전통우의 강조(10/15)

- 중국의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은 14일 북한의 변인선 인민무력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군 친선참관단을 맞아 양측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협력을 고위급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음. 량 국방부장은 이날 굳게 다져진 양측의 깊은 우호협력 관계를 거론하며 “중국과 조선은 오랜 세월 상호존중하면서 서로 도왔다”고 강조했음.
- 또 량 부장은 중국과 북한이 자신의 발전을 촉진하고 공동이익, 지역 평화와 안정을 지킬 임무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이 북한과 교류를 강화하고 양측 정부와 군 사이의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음.
- 이에 변인선 부부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우호 협력을 증대하기를 원한다며 양측의 뒷세대 지도자들이 쌓은 우의를 높이 평가했음. 변인선은 북한군 참관단이 방중 기간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이룬 성과와 군사적 발전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음. 중국인민해방군 초청으로 방중한 북한군 참관단은 남부 윈난(雲南)성도 시찰할 예정임.

● 中, 김정일 부자에 ‘의미있는’ 선물·후계 동의?(10/14)

- 중국이 북한의 당창건 65주년을 맞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 각각 ‘우호협력 증진’과 ‘전통적 우의 계승’의 뜻이 담긴 선물을 전달해 주목됨.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축하사절단을 이끌고 방북한 저우용강(周永康)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당서열 9위)가 지난 11일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달한 선물 사진을 2장 공개했음.
- 이 사진들을 보면, 김 위원장한테 전달된 액자에는 지난 8월 하순 방중 기간 중국 창춘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악수하는 장면과 하단에 ‘조선노동당 창건 65주년을 축하한다. 중국과 조선의 전통적 우의를 부단히 공고하게 발전시키자’는 문구가 들



어가 있음. 김정은에게 전달된 선물은, 젊은 시절 김일성 주석이 마오쩌둥(毛澤東)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환담하는 사진과 함께 상단에 ‘상호협력과 전통적 우의를 대대로 전하자’는 요지의 문구가 들어간 접시였음.

- 김 주석과 마오쩌둥 주석의 얼굴, 배경 등을 볼 때 이 사진은 1953년 11월 두 정상이 베이징에서 처음 공식 회담을 가졌을 때 장면인 것으로 추정됨. 특히 중국 측은 이번에 북한의 현재와 미래 지도자에게 양국 정상의 첫 만남과 마지막 만남을 담은 선물을 전달함으로써 북중 협력의 전통을 강조하고,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암묵적 동의를 해준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음. 한편 중국 정부는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국제 사회의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지난 11일 후계자 김정은을 포함한 새 북한 지도부를 자국으로 초청해 눈길을 끌었음.

● <中, 北 새 지도부 ‘홍보’작업 시동>(10/14)

- 중국이 김정은을 필두로 한 북한의 새 지도부 알리기에 나서 주목됨. 중국은 북한의 노동당 대표자회와 당 창건일을 계기로 자국내에서는 언론매체를 동원해 김정은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보도하는가하면 대외적으로는 각국의 관심사인 북한의 새 지도부 소개에 힘을 기울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음.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13일자 중국어판에서 1면 전면을 할애해 ‘중국이 세계가 북한을 바로 볼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기사를 써 이런 분위기를 전했다.
-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남북연구센터의 뤼차오(呂超) 주임이 쓴 이 기고문은 “세계 각국이 김정은의 권력승계를 인정하면서 북한의 새 지도부와 접촉을 희망하고 있으며, 중국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를 신속하게 행동으로 실천했다”고 적고 있음. 주목되는 점은 이 기고문이 “중국이 북한의 그런 현실을 세계가 직시하도록 이끌고 가겠다”면서 외교적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있음.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중국 당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각국 외교사절에 북한의 새 지도부 알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음. 중국 내에서는 이미 김정은 홍보가 시작됐다는 지적임. 지난달 말 북한의 노동당 대표자회 폐막후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의 베이징 방문과 후 주석의 최 비서 접견, 그리고 노동당 창건 65주년을 기회로 후 주석 등의 북한 후계 인정 발언 등의 내부절차를 거쳐 중국 정부가 이제는 공개적인 김정은 인정 행보에 나섰다는 것임.
- 특히 서열 9위이기는 하지만 최고 지도자 반열의 저우용강(周永康) 정치국 상무위원이 노동당 창건일에 참석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면서 김정은에게 김일성과 마오쩌둥(毛澤東)이 환담하는 사진을 담은 장식품을 선물로 건넨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이 장식품 위쪽에 중국어로 ‘중조(중북)간 전통적 우호가 대대손손 전해지길 기원한다’는 문구와 더불어 받는 사람을 ‘김정은(金正銀) 동지’로 적고 있는 점이 눈에 띄.

- 중국 관영매체의 보도는 더 적극적임. 인민일보는 지난 8일 인터넷 사이트인 인민망을 통해 “북한의 제3대 지도자 신비의 베일을 벗기다” “가장 평범하지 않은 ‘바링허우(80後. 80년대 출생자)’ 김정은”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특집 기사를 내보냈고 신화통신 등도 김정은의 후계를 공식 확인했다고 보도했음.
- 이를 바탕으로 신경보(新京報) 등의 중국내 상업 신문들도 “80년대생 김정은, 정치 무대서 급부상”이라는 제목으로 김정은 알리기에 나서고 있음. 중국 언론매체들은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고 그런 맥락에서 김정은으로의 후계 구도 정착이 바람직하며 김정은을 필두로 한 북한의 새 지도부가 중국과 마찬가지로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기를 기대하는 논조를 펴고 있음.

● 中외교부부장, 北영사협상대표단 만나(10/13)

- 중국의 쑹타오(宋濤) 외교부 부부장이 12일 북한 외무성 영사국 리호영 부국장이 인솔하는 제11회 북중영사협상 대표단을 접견했다고 중국 정부의 공식사이트인 중국정부망이 13일 보도했음. 쑹 부부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 대표단의 방중을 환영한다면서 양국간 영사협력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음. 그는 그러면서 양국 영사관련 부서가 공동 노력해 실무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인적 교류를 강화하자고 제안했음. 리 부국장은 공동 노력으로 영사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양국 전통 우의를 깊게 하자고 화답했음.
- 중국정부망이 제11회 북중 영사협상과 관련해 일정과 협의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그 자리에서 중국내 탈북자 문제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돼 그 결과가 주목됨.

● 中 “중조친선, 동북아 안정에 기여”(10/12)

- 마자오취(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우리는 북한이 당대표자회에서 새 영도기구를 건설한 것을 축하하며 북한의 각 사업이 부단히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마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김정은 후계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음. 마 대변인은 저우융캉 상무위원의 방북이 양국 관계의 미래에 어떤 의의를 갖느냐는 질문에는 “저우 상무위원은 방북 기간 김정일 총서기기와 북한의 새 지도부에게 편리한 시기에 방북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북중 간 고위층이 교류하는 전통을 유지하고 공통 관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중조친선의 전통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도 유리한 것”이라고 답했음.



- 그러나 마 대변인은 중국이 북한의 새 지도부를 초청한 것에 구체적으로 김정은이 포함되는지에 관해서는 즉답을 피했고, 김 위원장으로부터 방북 요청을 받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연내에 방북할 가능성이 크냐는 질문에도 “가정의 문제에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中, 北 ‘새 지도부’ 방중 초청(10/11)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1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초청한데 이어 후 주석은 김 위원장을 포함한 ‘새 지도부’의 방중을 요청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음.
- 중국의 이런 메시지는 차기 최고지도자로 유력시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8일 “북한 노동당의 새 지도체제와 함께 협력 정신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후 주석이 9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중조(북중) 우의가 대대로 전해져 내려가야 한다”고 강조한데 이어 나온 것임. 김 위원장도 회답에서 저우 상무위원에게 “조중(북중)은 고위층이 상호 방문하는 좋은 전통을 계승해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본인을 비롯한 중앙 영도집단 구성원들은 중국에 자주 가보고 싶다”며 후 주석의 방북을 정식으로 요청했음.
- 김 위원장은 이어 “조중 양국은 정치 면에서 상호신뢰의 전범을 구축해야할 뿐 아니라 경제 면의 상호협력에서도 전범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앞으로 부단히 경제협력 분야 수준을 높여가도록 하자”고 제안했음. 김 위원장은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것을 언급하며 경제안정을 유지하면서 빠른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전면에 등장한 것을 가리키는 듯 “얼마 전 열린 당 대표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젊고 실력 있는 동지들을 중앙 영도집단으로 받아들여 중앙 영도 기구를 완비하게 되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음.
-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과 중국이 서로 최고 지도자를 초청하면서 조만간 양측의 교차 방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김 위원장이 올해들어 5월과 8월에 각각 방중한 터여서 순서상으로는 후 주석의 방북이 먼저 이뤄지고, 그 다음에 김 위원장과 김정은을 포함한 새 지도부가 방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음. 중국의 북한 새 지도부 방중 초청은 김정은을 사실상 북한의 차기 지도자로 인정하는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 등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음.
- 저우 상무위원은 회답에서 “3일이라는 짧은 방문 기간 4차례나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조선노동당과 정부가 양국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올해는 중조관계가 역사적으로 고조에 오른 한 해로 김 위원장이 4개월 새에 두 차례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총서기와 공통 관심사에 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며 공통 인식에 도달했다”면서 “중



국 당과 정부는 조선과 더불어 부단히 중조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며 공동발전을 실현하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공산당은 곧 열릴 17기 5중전회에서 향후 경제사회발전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며 “우리는 조선의 동지들과 서로 귀감으로 삼아 공동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길에서 새 진보를 일궈 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이날 회담에는 중국측에서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쑨정차이(孫政才) 지린(吉林)성 당 서기, 류홍차이(劉洪才) 주북 중국대사가, 북한측에서는 강석주 내각 부총리,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영일 당비서 겸 국제부장 등이 배석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 김정일 “中후진타오 방북 희망”(10/11)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11일 북한을 방문 중인 저우용강(周永康)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과의 회담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중(북중)은 고위층이 상호 방문하는 좋은 전통을 계승해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본인을 비롯한 중앙 영도집단 구성원들은 중국에 자주 가보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노동당은 조중 관계가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건강하게 발전해온 것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쌍방은 전략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이어 “조중 양국은 정치 면에서 상호신뢰의 전범을 구축해야 할 뿐 아니라 경제 면의 상호협력에서도 전범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앞으로 부단히 경제협력 분야 수준을 높여가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것을 언급하며 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빠른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전면에 등장한 것을 가리키는 듯 “얼마 전 열린 당 대표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젊고 실력 있는 동지들을 중앙 영도집단으로 받아들여 중앙 영도기구를 완벽하게 되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 저우 상무위원은 김 위원장과 북한의 새 지도부가 편리한 시간에 중국을 방문해달라는 후 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새 지도부에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중앙위원회 위원 타이틀로 지도부 반열에 공식 등극한 김정은도 포함돼 중국이 김정은을 공식 초청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주목됨.

● 저우용강 “김일성, 중국인의 위대한 친구”(10/11)

- 북한 노동당 창건 65주년 축하 사절단을 이끌고 방북 중인 저우용강(周永康)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10일 고 김일성 주석의 생가인 평양 만경대를 방문해 “김 주석은 조선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자 중국 인민의 위대한 친구”라고 극찬했다.



- 북한이 전날 열린 성대한 열병식을 통해 김정은 후계 구도를 대내외에 선포한 직후 나온 저우 상무위원의 발언은 김 주석-김정일 국방위원장-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만경대 혈통'의 정통성을 중국이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됨.
- 저우 상무위원은 만경대를 찾아 북한 측 안내를 받으며 둘러보고 나서 “나는 여기서 깊은 혁명 전통을 교육받았다”면서 “김 주석은 마오쩌둥 주석 등 중국의 선대 혁명기들과 함께 전통적인 중조 우의를 손수 건설했다”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 저우 상무위원은 “김 주석은 양국 인민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있다”며 “양국의 전통적 우의가 새 시대에도 발전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저우 상무위원은 만경대에 이어 세계 다른 대도시들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색적인 모습 때문에 평양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진 여성 교통경찰 초소를 방문해 교대 의식을 참관하고 이들을 격려했음. 이어 저우 상무위원은 11일 오전 평양시 삼석구역에 위치한 대동강과수 종합농장을 방문해 과수원과 사과 저장·가공 시설 등을 둘러봤음.
- 면적이 735ha에 이르는 대동강 과수농장은 인민보안부(한국의 경찰 해당)가 직접 건설,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사과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김정일 위원장은 2009년 11월과 작년 6월 두 차례 이곳을 찾을 정도로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저우 상무위원은 “이곳에서 조선의 당과 정부가 농업과 민생 문제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인민에게는 밥이 하늘이므로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인민이 편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업은 중국과 북한 모두에서 전략적 산업이라면서 앞으로 농업 분야의 교류와 발전을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향후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농업 지원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음.
- 저우 상무위원은 지난 9일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중조경제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기도 했음. 지난 9일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쑨정차이(孫政才) 지린(吉林)성 당 서기 등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한 저우 상무위원은 김 위원장과 면담하고 김정은 등 차기 북한 지도자들과 상견례를 했으며 11일 2박3일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임.

라. 일·북 관계

● 北, 日 대북정책 비난..유연한 대처 촉구(10/12)

- 납북자와 핵, 미사일 등 문제를 포괄적으로 풀겠다는 일본 정부의 대북정책을 북한이 정면으로 비난하면서 유연한 대처를 촉구했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음.
- 북한의 송일호(宋日晷.56)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담당 대사는 통신



과 인터뷰에서 “과거 자민당 정부가 포괄적 접근이라는 잘못된 대북 정책을 입안했기 때문에 북-일 관계가 개선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송 대사는 또 “민주당 주도의 새 정부 역시 이런 (자민당의) 정책을 따르고 있음. 이런 환경에서 (양국) 관계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음. 송 대사는 “현재 국면은 일본이 납치 문제에 납치된 상황”이라고 비꼬기도 했음.

- 그는 양국이 관계를 강화하고 신뢰를 쌓으면 일본 국민이 가진 납북자에 관한 의문은 자연스레 풀릴 것이라면서 일본 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음. 송 대사는 “우리는 납치 사실을 시인했고 이를 해결하고자 가능한 모든 조치를 했다”며 “그러나 일본은 의혹만 키우며 양국 사이에 온갖 장벽들을 만들었다”고 비난했음.
- 송 대사의 이날 발언은 지난 1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 이후 북한의 고위 관리가 내놓은 일본의 대북정책 관련 첫 언급이어서 주목됨. 이어 그는 핵 문제와 관련 유엔이 대북 제재를 우선 해제해 북한이 평등한 입장에서 6자 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음. 한편, 송 대사는 이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열정적으로 나라를 지도하고 있지만 “혁명 달성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며 김 위원장의 삼남 김정은이 후계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음. 그는 특히 김정은을 노동당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은 세대를 뛰어넘는 혁명 위업 완수를 원하는 당(黨)과 군(軍), 인민의 뜻이 투영된 것이라고 소개했음.

● 北 고관 “日총리 교체 잦아 대화 어렵다”(10/12)

- 북한 고위관리가 일본의 총리가 너무 자주 바뀌어 누구와 대화를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음. 이 통신은 북한의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식 참석차 평양을 방문하고 귀국길에 오른 프로레슬러 안토니오 이노키씨가 이날 경유지인 베이징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이노키씨에 따르면 평양에서 만난 고위 관리는 “일본의 총리가 자주 바뀌어 북-일 관계와 관련 누구와 진지하게 대화를 할수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일본의 의원단이 방문하면 환영하겠다”고 말했다.
- 전 참의원이자 일본의 종합격투기단체인 IGF 사장인 이노키씨는 북한통으로 자주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북한은 지난 달 만수대의사당에서 이노키씨에게 ‘친선훈장’ 1급을 수여했음. 당시 훈장 수여식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었음. 한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결정된 김정은이 노동당 창건 65주년 행사인 열병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 “전세계에 신체제, 후계자를 각인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면서 “북한 체제의 추이를 아주 신중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 25일 시작(10/15)

- 오는 2014년 3월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첫 협상이 25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D.C에서 개시됨. 외교 소식통은 15일 “양국 정부가 25일부터 워싱턴에서 원자력협정 개정협정을 위한 공식협의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음.
- 이 소식통은 이어 “이번 협정개정을 통해 미국과 광범위한 분야에서 기술협력은 물론 산업과 상업적 협력관계가 증진되고 양국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음. 협상 대표로는 우리측에서 조현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미국측에서 로버트 아인혼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이 나설 예정임.
- 한·미 양국은 이번 협상과 병행해 그동안 양국 학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돼온 ‘파이로 프로세싱’(건식처리) 기술과 관련한 공동연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음. 이번 협상에서는 한·미 양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핵연료의 재처리 허용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협상에서 한국측은 포화상태에 이르는 원전 저장능력과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재활용 필요성을 내세워 핵의 재처리 허용 문제를 미국측이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특히 핵확산 위험물질인 플루토늄을 따로 추출하지 않고 사용후 핵연료를 다시 가공해 핵연료로 재활용하는 ‘파이로 프로세싱’ 공법을 재처리 기술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미국측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재처리 추진을 허용하는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파이로 프로세싱도 기존 습식(濕式) 재처리 기술과 확실히 다르다는 점이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됨.

● <한·미공군, 대규모 공중전 훈련>(10/14)

- 한국과 미국 공군은 15~22일 한반도 서부 공역에서 연합 전투능력 신장을 위한 대규모 항공전역훈련(일명 맥스선더)을 실시한다고 공군이 14일 밝혔음. 한국측 주도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전시 상황을 가정, 적기의 예상치 못한 도발에 대해 양국 공군이 대규모 공격 편대군을 이루어 공중전을 벌이고 타격 목표에 대한 전술폭격으로 진행될 예정임.
- 최신예 F-15K와 KF-16, F-4E 전투기, C-130 및 CN-235 수송기를 비롯한 미측의 F-16 등 50여대가 참가함. 미 F-16은 메릴랜드, 알래스카 등 본토에서 출격하며 참가 전력의 공중급유를 위한 KC-135



공중급유기도 동원될 예정임. 특히 적기 역할을 전담하는 미 공군 354비행단 18대대가 알래스카에서 처음으로 한반도에 전개될 예정임. 이 비행단의 항공기는 아군이 사용하는 회색이 아니라 실제 미 그기나 수호이와 같은 색임.

- 공군 관계자는 “양국 전투조종사만 250여명이 참가하게 된 것은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전시대비 실전적 전투훈련의 중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적의 도발시 교전규칙에 따라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공중기동 전술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훈련인 21일에는 미 7공군 부사령관인 스콧 데니스 준장이 한국 측 KF-16에, 공군작전사 부사령관 정재부 준장이 미측 F-16에 각각 탑승해 공중지휘를 하게 됨.
- 정재부 준장은 “훈련에 참가하는 조종사들은 최소 2회 이상의 사전 훈련을 하는 등 실전적인 전투 돌입 태세를 갖췄다”며 “완벽한 영공 방위 태세를 유지하도록 전시수행절차를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한·중 관계

● 中, 우다웨이-김계관 협의 韓에 통보(10/14)

- 중국 외교부가 김계관 북한 제1부상의 방중을 계기로 한 북중간 북핵 6자회담 결과를 14일 한국에 통보했음. 중국 외교부는 이날 오전 베이징(北京) 소재 주중 한국대사관의 임성남 정무공사를 불러 지난 12일 중국을 방문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간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 우다웨이 특별대표는 13일 방중한 일본의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에게도 같은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은 미국, 러시아 등의 6자회담 당사국들에게도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음. 그러나 중국 측이 밝힌 북중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음.
- 김 부상과 우다웨이 특별대표간 이번 회담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이후 북중 양국이 적극적인 재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8월 16~18일 방북, 그리고 그에 이은 한·미·일 3국 순방 이후에 이뤄진 것임.
- 중국은 그동안 ‘북·미 접촉→6자 예비회담→6자 본회담’의 3단계 수순을 거쳐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입장이었으나 한·미·일 3국 모두 그 제안에 대해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밝힌 터여서, 이번에 북중 양국이 그와 관련해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우리측은 6자회담 재개는 북한의 진정성있는 행동변화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음. 중국 당국은 아울러 조만간 공산당 대외연락부를 통해 우리 측에 저우 상무위원



의 방북과 그에 앞선 북한 노동당의 최태복 중앙위원회 비서의 방중을 통한 북중 접촉 결과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 中, 김 국방 연내 방중 공식초청(10/14)

- 국방부는 14일 중국이 김태영 국방장관을 연내 공식 초청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김 장관과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이 지난 11~12일 베트남에서 개최된 제1차 아세안(동남아 국가연합) 확대국방장관회의(‘ADMM+’)에서 단독회담을 했다”면서 “량 부장이 김 장관에게 연내 중국을 방문해주도록 초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시기를 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 국방부 관계자는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과의 군사교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환경이 조성됐다”면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국측에서 우리나라 국방장관을 초청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교류 관계 회복 차원에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의 대한(對韓)·대미(對美) 군사교류 정상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중국이 주변국과의 군사협력 재개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유화적인 자세로 바뀐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와 시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듣기만 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다. 한·일 관계

● 박희태 의장, 日 총리에 G20 협력 요청(10/13)

- 한국 입법부 수장이 일본 총리를 만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6시 일본 총리 관저에서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를 만나 내달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측의 협력을 요청했다.
- 박 의장은 이날 회담에서 간 총리가 밝힌 한국 강제병합 100년 사죄담화의 의미를 평가한 뒤 “한국과 일본이 함께 손을 잡고 세계로 대 진출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어 내달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과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 대한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피력했다.
- 간 총리는 “한국이 많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일본도 FTA를 체결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일-한(한-일) FTA를 조기에 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는 나경원, 김태환(한나라당), 강창일(민주당) 의원과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가 배석했다.



● 박희태 의장 “한·일 손잡고 세계에 진출하자”(10/12)

- 일본을 방문한 박희태 국회의장이 “한일 관계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손을 내밀자 일본측이 “양국 의회의 정기적인 교류 메커니즘을 만들자”고 제안했음.
- 박 의장은 12일 오전 도쿄 중의원에서 요코미치 다카히로(橫路孝弘) 중의원 의장과 니시오카 다케오(西岡武夫) 참의원 의장을 각각 만나 양국 현안과 우호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했음.
-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에 할 이야기가 많지만, 옛 이야기보다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는 만큼 한국과 일본이 이제 진정한 친구로서 세계로 함께 대진출하는 시대를 열자”고 제안했음.
- 이에 대해 요코미치 중의원 의장은 “36년간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사과드릴 부분은 사과드리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양국 국회 간의 정기적인 교류 메커니즘(틀)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박 의장은 일단 동감의 뜻을 표시한 뒤 내년엔 서울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에 일본측을 초대했음. 또 내달 29일 개최될 양국 의원 합동총회에 기대감을 표시했음. 또 재일동포 지방 참정권 실현에 힘을 기울여온 요코미치 의장에게는 별도로 감사의 뜻을 표시했음.
- 한국 국회의장이 일본을 공식 방문한 것은 2003년 박관용 전 의장 이후 7년 만임. 박 의장은 13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를 만난 뒤 14일 가나자와(金澤)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를 참배하고 귀국할 예정임. 이번 방일에는 나경원, 김태환, 김정훈(한나라당), 강창일(민주당) 의원과 심지연 입법조사처장, 윤원중 의장 비서실장, 배준영 국회 부대변인이 동행했음.

라. 미·중 관계

● 美中 8개월만에 군사교류 재개(10/16)

- 미국과 중국이 올해 초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이후 8개월간 중단된 군사 교류를 재개해 15일(현지시간) 마무리하는 등 화해 분위기를 이어갔음. 미국과 중국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이틀간 진행된 장성급 군사 해사(海事) 회담을 이날 마쳤음.
- 미 태평양군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회담은 양국 해·공군 병사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이는 양국이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의미 있는 군사 교류를 하는데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밝혔음. 미국 측 대표인 랜돌프 알레스 해병대 소장은 “인접 지역에서 작전 중인 해·공군 병사들의 안전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전문적이고도 솔직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평가했음. 중국 측은 이날 회담에 대한 논평을 아직 내놓지 않았음. 중국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문제가 불거진 올 1월에 미국과 군사교류 중단을 선언한 바 있음. 중국이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의 방문을 요청하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여 내년 초쯤으로 방중 시기를 조율하는 등 양국 간 긴장 관계는 다소 해소되는 분위기임.

● 中 상무부 “美 C-130 수송기 판매 환영”(10/16)

- 중국 정부가 자국에 미국이 C-130 수송기를 판매하려는 움직임에 환영을 표시했음. 중국의 야오젠(姚堅)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상.하원에 서한을 보내 C-130 수송기의 중국 판매제한을 풀어달라고 한 제안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6일 보도했음. 오바마 대통령은 서한에서 국익을 고려해 C-130 수송기의 수출금지 해제를 희망하며 중국이 C-130 수송기를 수입해 군용이 아닌 해상 유류 오염 대처용으로 사용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 그러나 백악관은 C-130 수송기 수출의 시기, 규모, 단가 등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음. 미국의 C-130 수송기 판매허가 움직임에 중국 국방부가 아닌 상무부에서 환영 논평을 낸 게 이례적임. 미국 의회가 동의해 C-130 수송기 중국 수출이 성사되면 이는 1989년 텐안먼 사태를 계기로 무기금수 조치가 취해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이 중국에 첨단 군수용품을 판매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록히드 마틴사가 개발한 C-130은 공중급유가 가능한 전략수송기로, 미국 공군에서 1천여대가 운용되고 있으며 한국, 일본 등 50여개국에서 널리 보급돼 있음. 중국은 C-130 수송기의 수입을 시작으로 미국의 대중 첨단제품 수출 금지 조치가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美·中 학자들도 ‘위안화 절상’ 격돌(10/14)

- 최근 미·중 양국 정부가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4일 열린 국내 토론회에서 양국 학자들은 자국의 입장을 대변하듯 서로 상반된 견해를 내세우며 공방을 벌였음. 중국 학자는 위안화를 절상하면 중국이 막대한 손실을 본다고 우려했고 미국 학자는 공정한 게임을 위해 위안화 절상이 불가피하다고 맞섰음.
- 밀리언셀러 ‘화폐전쟁’ 시리즈 저자로 유명한 송홍빙(宋鴻兵) 중국 환구재경연구원장은 14일 중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위안화를 절상한다면 엄청난 손실을 볼 것이라고 하며 화폐의 주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음. 송 원장은 이날 서울 워커히호텔에서 매일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11회 세계지식포럼에서 ‘중국 위안화 국제화 전략이 아시아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 그는 우선 “(달러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미국의 양적 완화정책은 부도덕하며 결국 화폐전쟁을 야기했다”며 “채권자들이 더는 사기를 당하고 싶어하지 않는데도 많은 미국 학자, 정치인은 그렇게 생각하



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음. 그는 “미국 정부는 중국에 위안화를 20% 절상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22조위안화의 총자산 중 75%를 미 달러화로 가진 중국 중앙은행은 3조위안화 이상의 손실을 볼 것”이라며 “이는 2008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 그는 “이 경우 중국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는 붕괴하고 중국 정부가 개입해 더 많은 화폐를 찍고 세금을 올려야 하는데 그럼 통제 불능의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1천만명의 중국인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중국은 화폐의 주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러나 미국 측 교수들은 위안화 절상의 불가피성을 역설했음. 누리엘 루비니 미 뉴욕대 교수는 쑹 원장과의 토론에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위안화는 자연스럽게 절상됐을 것”이라며 “중국은 언젠가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음.
- 루비니 교수는 “중국은 위안화를 절상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인플레이션과 자산 거품을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성원 미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도 “미국은 지금 중국에 게임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쑹 원장의 주장을 반박했음. 폴 크루그먼 미 프린스턴대 교수는 전날 강연에서 “(중국에) 특별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 양측은 그러나 대화를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했음. 쑹 원장은 “화폐전쟁이 일어난다면 양쪽 모두 패자가 될 것”이라며 “절상 폭은 3~5%가 적절하다”고 제시했고, 루비니 교수도 “위안화가 2005~2008년 매년 5~6%쯤 절상됐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서로 타협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음.
-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환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었음. 쑹 원장은 “내실 있는 결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런 문제는 공개석상이 아니라 양쪽 정부가 비밀리에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고, 루비니 교수는 “양자보다 다자를 통한 해결이 이상적”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음.

● ‘ADMM+’ 개막..美-中 신경전 여전(10/12)

- 동남아 지역 안보협력을 위해 마련된 제1차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확대국방장관회의(‘ADMM+’)가 12일 공식 개막한 가운데, 최근 한-미 합동군사훈련 등 문제로 갈등해 온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이어졌음.
-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영토 주권을 둘러싼 이견과 영해(領海)의 무단 사용 문제는 지역 안정과 번영을 위협하는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음. 게이츠 장관은 또 “분쟁은 힘이나 강압에 의해



- 서가 아니라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만, 그는 중국을 지목하지는 않았고 “미국은 영토 분쟁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며 중국과의 마찰을 피했지만 이날 그의 발언은 최근 잇따르는 중국과 주변국과의 갈등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런 가운데 중국은 자국의 군사력 증강이 지역 안정을 해치지 않는다고 항변했음.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은 “중국의 국방력 증강은 누구를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체 치안을 확보하고 국제적 지역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이어 “중국의 국방 전략은 기본적으로 방어적임. 또 중국은 지역 안보 협력을 위한 문을 열어 놓았다”고 덧붙였다.

마. 미·일 관계

● “후텐마에 걸려 美日 안보공동선언 유보”(10/17)

- 미국과 일본이 미일안보조약 개정 50주년을 맞아 다음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발표하기로 했던 새로운 미일 안보공동성명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은 11월의 오바마 대통령 방일 때 지난 1996년에 나왔던 ‘미일 안보공동선언’을 대체할 포괄적인 안보공동선언을 추진했지만 후텐마기지 이전 문제의 불투명성 등 미해결 상태인 현안이 많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
- 미국과 일본은 작년 11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 당시 1년후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때까지 동맹심화 차원에서 핵우산과 미사일 방위, 우주, 방재 등의 분야를 포괄하는 안보공동선언을 내놓기로 했었음.
- 하지만 후텐마 기지 이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최종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데다 주일 미군 경비의 일본 부담 문제를 둘러싼 협의도 난항을 겪고 있는 등 현안이 정리되지 않아 안보공동선언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음. 미일 양국은 안보공동선언을 유보하는 대신 다른 분야에서 공동성명을 모색하기로 하고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음.

바. 미·러 관계

● <미·러 군사협력 갈수록 확대>(10/13)

- 냉전 시절의 양속인 러시아와 미국 간의 군사협력이 한층 확대되고 있음.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러시아군 당국 사이에 이뤄지는 정보·인사 교류 차원을 넘어 러시아와 미국이 서로 상대국의 무기를 수입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음.
- 최근 러시아 국방장관이 군 현대화를 위해 미국 무기를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미 국방부도 러시아 전투 헬기 구매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러 유력 방송 ‘라시야(Russia)’는 13일 미국 군사잡지 디펜스 뉴스



- (Defense News)를 인용해 “미 국방부가 러시아 국영무기수출업체 ‘로스오보론엑스포르트’사와 다목적 전투 헬기인 Mi-17 구매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군 비표준 헬기구매 프로젝트 책임자 버트 버거스 대령은 “러시아 군사무기 생산업체와 협력 관계를 여는 것은 국내에서 치누크 헬기를 만드는 보잉사나 블랙호크(Black Hawk) 헬기를 제작하는 ‘시코르스키’사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군의 이해에 부합한다”면서 러시아 무기 구매 의사를 밝혔다. 양국 간의 직접 무기 구매 협상은 미국 정부가 올 5월 러시아 무기 생산 업체들에 취해오던 제재 조치를 해제하면서 가능해졌음.
- 미국은 러시아가 이란, 북한, 시리아 등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대량 살상무기(WMD) 비확산체제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러시아 무기업체들에 대해 제재를 했었음. 미군은 러시아에서 구매할 Mi-17 헬기를 아프가니스탄 대(對) 테러전에 투입할 계획임. Mi-17은 산악지형 전투에서 효율성이 입증됐을 뿐 아니라 미군과 공동 작전을 펼치는 아프간 정부군 조종사들이 옛 소련의 헬기에 익숙하기 때문임.
 - Mi-17은 옛 소련이 1960년대부터 생산한 Mi-8 헬기를 1980년대 들어 현대화한 신형 다목적 헬기인 Mi-8MT의 수출용 이름임. 한편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앞서 이달 초 미국 시사잡지 뉴스위크(Newsweek)와의 인터뷰에서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 무기를 구매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이밖에 미국과 러시아는 이란 등의 위협에 대비해 유럽 지역에 공동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사. 중·일 관계

● <中日 대규모 반일.반중 시위..화해 찬물>(10/17)

- 중국에서 폭력을 동반한 대규모 반일(反日) 시위가 벌어지고, 일본에서도 맞불 반중(反中) 시위가 불거져 센카쿠 갈등 이후 개선 조짐을 보이던 외교관계에 찬물을 끼얹었음. 일본은 중국의 반일 시위가 일본 기업에 대한 습격으로까지 비화해 피해가 발생하면서 중국에서 체류중인 자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충격을 받고 있음.
- 요미우리신문은 17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청두(成都), 시안(西安), 정저우(鄭州) 등 3개 도시에서 16일 수만명 규모의 반일 시위가 발생했으며 시안에서는 일본계 슈퍼마켓이 부서지는 피해가 났다고 전했다.
- 이번 시위는 2005년 4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당시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반발해 발생했던 반일 시위이후 최대 규모로, 관계회복으로 나아가던 중일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음. 이 신문은 중국의 중요한 정치이벤트인 공산당 5중전



회가 개막된 날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면서 후진타오 정권도 충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음. 가두시위가 무질서한 사태로 변질 경우 사회가 불안해지고 빈부격차 등에 따른 민중의 불만이 중국 정부로 돌려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음.

- 아사히신문도 양국이 센카쿠 충돌로 악화됐던 관계를 개선하려고 있고, 중국 공산당의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는 와중에 발생한 이례적인 시위로 중국의 대일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내다봤음. 이 신문은 이번 시위 참가자들은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주도한 '애국교육'으로 반일 감정을 품고 있는 젊은 세대였다면서 대중의 자발적 시위를 당 중앙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노정했다고 보도했음.
- 일본측은 청두에서만 반일 시위에 2만명이 참여했고 일본 음식점과 화장품 가게 등 5개 일본계 점포가 습격을 받아 문과 간판이 부서진 것으로 파악했음.
- 일본에서도 16일 오후 도쿄 시내 미나토구의 공원에서 3천명이 참석한 방일 시위가 있었으며, 일부 시위 참가자는 중국대사관으로 몰려가 센카쿠 영유권 주장에 항의했음.
- 양국에서 대규모 반일, 반중 시위가 벌어지면서 센카쿠 선박 충돌사태 이후 깊어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던 두 나라 정부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음. 반일, 반중 여론이 강한 상태에서 관계 회복을 서두를 경우 국내에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중일 양국은 이달 들어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와 원자바오 총리,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과 량광례 국방부장이 비공식적으로 회동해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데 이어 이달 하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 때 간 총리와 원자바오 총리가 공식회담을 통해 관계 정상화를 모색할 예정이었음.
- 또 다음달에는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참석해 양국의 완전한 관계개선을 부각할 방침이었으나 이번 시위사태로 일정이 불투명해졌음.

● <中.日 '다오위다오 분쟁' 거리로 재분출>(10/17)

- 다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분쟁으로 악화일로를 걷던 중일 관계가 최근 가까스로 해빙기에 접어드는 듯했지만 서로 상대국을 비난하는 양국 국민의 거리 시위가 촉발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됨.
- 16일 중국과 일본에서는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상대방을 비난하는 대규모 거리 시위가 동시에 벌어졌음. 중국에서는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시,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시 등 대도시에서 수천~수만명의 시위대가 도심에 모여들어 '다오위다오를 반환해라', '일본 상품을 쓰지 말자'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반일 시위를 벌였음. 이번 시위는 대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 초기에는 대학생들이 중심이었지만 점차 일반인들이 가세하며 시위대 규모가 늘어났다. 청두시 시위에서 일부 시위대가 일본계 유통업체인 이토 요카도(Ito Yokado)에 침입해 피해를 입히고 다른 일본 가게들을 향해 플라스틱 병을 던지는 등 여러 도시에서 격렬한 시위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 출동한 중국 무장경찰은 일본 상점 앞을 막아서며 냉정을 촉구하는 선에서 대응하며 시위대를 적극 제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일본에서는 우익 성향의 반중 시위대 2천여명이 16일 주일 중국 대사관에 몰려가 항의 시위를 벌였다.
- 대표적 보수 인사인 타모가미 토시오(田母神俊雄) 전 항공막료장이 이끄는 시위대는 이날 도쿄 아오야마 공원에 모여 반중 시위를 벌인데 이어 일본 국기를 들고 도쿄 주재 중국대사관 앞까지 행진했다. 지난 8일에는 중국대사관에 비난 글과 함께 협박용 실탄이 날아들어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일본에서는 우익을 중심으로 반중 여론이 거세지는 분위기임.

● 中, 日우익세력 시위에 우려 표시(10/17)

- 남중국해 상의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간의 갈등이 가두시위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16일 일본 우익 시위대가 주일중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인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자국 군중에게 반일 시위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논평에서 일본 우익 시위대가 도쿄에 있는 주일중국대사관 앞에서 반중 시위를 벌인데 대해 일본측에 깊은 관심과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 마 대변인은 일본에 외교관계에 관한 빈 조약의 의무를 준수하고 중국 대사관과 대사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대표적 보수인사인 타모가미 토시오(田母神俊雄) 전 항공막료장(공군참모총장) 등이 이끄는 시위대 2천여명은 이날 도쿄 아오야마 공원에 모여 반중시위를 벌인데 이어 일본 국기를 들고 도쿄 주재 중국대사관 앞까지 행진했다.
- 한편 마 대변인은 중국 군중 수천명이 이날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산시(陝西)성 시안(西安),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 등에서 시위를 벌인데 대해 자제를 촉구했다. 그는 일본의 잘못된 언행에 대한 일부 군중의 의분을 이해하지만 이런 애국적인 열정은 법에 의해 이성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비이성적이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마 대변인은 군중이 애국적인 열정을 순화해 자신의 직분을 다하는 데 쏟고 개혁과 발전, 그리고 안정유지에 힘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 日, 구글에 센카쿠 중국명 표기 삭제요구(10/14)

- 일본 정부가 세계최대의 검색사이트인 미국의 구글에 센카쿠(尖閣)의 중국명 표기인 다오위다오<釣魚島>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음. 1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외무성 당국자는 이날 구글의 일본 현지법인에 전화를 걸어 센카쿠라는 일본명과 다오위다오라는 중국명을 병기하고 있는 구글의 지도사이트에서 중국명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음.
- 외무성은 “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인 만큼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구글에 전달했으며, 구글 측은 “알았다”고 응답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는 이날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 의원이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상에게 구글 지도사이트에서 다오위다오라는 중국 명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임.

● 中대학생 400명 방일..“민간교류 회복”(10/12)

- 중국 대학생 400여 명이 12일 일본을 방문했으며 이는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갈등으로 중단됐던 중국과 일본 간 민간교류가 정상화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가 보도했음. 방일한 중국 대학생들은 지린(吉林)성과 저장(浙江)성 등에서 선발된 대학생 대표단으로, 일본 정부의 초청에 따라 9일간 태평양 연안에 있는 이바라키현과 미야기현 등을 시찰하게 됨.
- 이에 앞서 지난 11일 베이징 공항에서 열린 이들의 방일 환송식에 참석한 주중국 일본대사관 관계자는 “견해를 달리할 때도 있었지만 중일 양국 관계의 기초는 언제나 우호와 협작을 강화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중국 학생 대표도 “약간의 문제가 존재하지만 양국 관계가 우호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고 화답했음.

● 日 총리 “中, 국제적 룰에 따라 행동해야”(10/12)

-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12일 센카쿠(尖閣 :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문제로 갈등을 빚은 중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의 룰을 확실히 지키면서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이 통신에 따르면 간 총리는 이날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중국이 대국으로서 국제적 책임도 크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음.
- 간 총리는 이어 “(일본과 중국의) 전략적 호혜관계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연결될 수 있도록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음. 간 총리는 다음달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 “세계의 성장축인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의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룰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음. 한편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



장관은 이날 오전 각의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구속됐던 건설회사 현지법인 사원의 석방과 관련 “이달 하순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의 때 일본과 중국간 양자 회담의 환경 구축이 전향적으로 진전될 것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말해 양국 관계가 호전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었던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과 량광레 중국 국방부장의 회동에 대해 “양국관계의 개선을 위한 중국측의 ‘사인’”이라고 해석했다.

● <中.日 이상한 ‘북도외교’ 언제까지>(10/12)

- 일본과 중국간 센카쿠 갈등 해소를 위한 장관급, 정상급의 고위 접촉이 비공식적으로 호텔 북도 등에서 이뤄지는 비정상적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일본은 중국과의 ‘화해 외교’에 적극적인 반면 중국은 국내의 반일(反日)여론 등을 이유로 일본과의 공식 접촉을 극도로 피하고 있음.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넷판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었던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과 량광레 중국 국방부장의 회동은 일본 대표단 숙소인 호텔 로비 한쪽 구석에서 20분간 이뤄졌음. 일본은 ‘짧은 회담’이라고 설명했지만 중국 측은 ‘면회’라고 표현했음.
- 중국 측은 회동에 앞서 면담 장소인 호텔 1층 로비에 기자단의 접근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만나지 않겠다고 했으나 호텔 로비의 언론통행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했고 결국 양국 국방장관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자들에게 악수를 하는 장면을 연출한뒤 로비 한 쪽 구석의 소파에 걸터앉아 얘기를 주고 받았음. 지난 4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가 열렸던 벨기에 브뤼셀에서도 같은 장면이 있었음. 당시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와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ASEM 만찬장 북도 의자에서 25분간 비공식적으로 회동했음.
- 당시 정상회동이 너무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바람에 간 총리는 일본어-중국어 통역을 대동하지 못하고 영어통역을 썼으며,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어-일어 통역을 통해 의사소통을 했음. 이를 두고 일본의 야당인 자민당 일부 의원은 “총리의 발언이 중국어로 어떻게 통역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이상(異常) 회담이 됐다”면서 위기관리의 문제라고 비판했음. 이런 형태의 고위급 회동은 중국의 희망에 따른 것임.
- 일본 측은 공식 대화를 원하고 있지만 중국이 꺼리고 있음. 기타자와 방위상은 11일 량광레 국방부장과 회동 뒤 기자들에게 “아직 중국이 완전히 (회담에) 전향적인 상태로 돌아오지 않은 것 같다.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음.
- 중국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다음달 방일(요코하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을 앞두고 일본과의 외교관계 경색을 조금씩 풀어



가고 있지만 혼쾌히 나서지는 않고 있음. 이는 중국 지도부가 국내 국민여론이나 공산당. 군부내 강경파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다오위다오'에서 어선 선장이 일본에 구속되면서 반일 여론이 악화돼 있는 상태에서 일본과 만나 '웃는 얼굴'을 보일 수 없다는 것임.

- 하지만 이를 '일본 길들이기'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음. 희토류 수출 중단, 관광 억제 등 경제적 수단으로 이미 일본에 타격을 가한 중국으로서는 급할게 없는 상황임. 중국이 너무 고압적이라는 국제여론이 일자 마지못해 일본의 대화요구에 응하고 있는 모양새임.
- 서두르는 쪽은 일본임.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은 센카쿠에서 체포한 중국 선장을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에 석방하는 바람에 '굴욕외교' 논란이 일면서 지지율이 급락했음. 따라서 일본 정부로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원위치'시켜 정치적, 경제적 교류를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함. 중국은 이런 일본 정부의 상황을 꿰뚫고 있다는 것임.
- 일본과 중국의 외교관계는 후진타오 주석의 일본 방문 이후에나 완전 정상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후진타오 주석의 일본 방문 전까지는 중국이 국내외 반응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우호 무드로 복귀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中日 국방장관 회동..“관계 회복하자”(10/11)

- 센카쿠(尖閣: 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열도 분쟁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일본과 중국 국방장관이 만나 긴장 완화 및 관계 회복에 관해 논의했음. 영토 분쟁 여파로 중일 간 고위급 인사 교류가 중단된 이후 장관급 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 중인 '아세안+8'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일본의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은 11일 중국의 량광레 국방부장과 회동에서 해상 연락체제 구축을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타자와 방위상은 이날 낮 량광레 부장과의 만남에서 예상치 못한 사태 방지를 위해 양국간 해상 연락체제의 조기 확립을 요청했음. 또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일본 해상자위대 실습함선의 중국 칭다오 기항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량광레 부장이 기타자와 방위상의 요청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음.
-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량 부장은 이날 회동에서 "최근 일본이 다오위다오 해역에서 불법적으로 중국 어선을 나포해 양국 관계에 엄청난 손해가 끼쳐졌으나 이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도 "중국은 줄곧 중일관계의 발전을 중시하고 있으며 대화 증진과 상호 이해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 량 부장은 "대화를 통해 이번 갈등을 해결하고 양국 관계의 큰 틀을



유지해야 한다”며 “일본과 더불어 민감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중일관계를 조기에 정상 궤도로 회복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량 부장은 또 중국은 양국 간 국방 교류를 중시하고 있으며 상호 신뢰를 부단히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이에 기타자와 방위상은 “일중 양국은 우호적인 이웃으로서 쌍방은 냉정하고 타당하게 문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한다”며 “각 영역, 특히 국방영역 교류를 통해 일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중일 양국 장관은 ‘대화’에 방점을 찍었지만, 센카쿠 분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회담 형식 등을 둘러싸고 양측 간에 팽팽한 물밑 기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은 중국 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비공식 간담회’ 형태로 이뤄졌고 장소는 일본 대표단이 묵는 호텔 로비 한쪽 구석이었으며 회담 일정이나 내용도 회동 직전까지 정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화통신은 이날 회동을 회담이 아닌 ‘간단한 대화(交談)’라고 표현했다.

아. 기타

● 한-러 수교 20돌 기념 경협 확대 논의(10/13)

- 한국과 러시아는 13일 신라호텔에서 수교 20주년 기념 공동세미나를 열어 지난 20년의 양국간 협력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20년을 대비할 경제협력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공동 주최하고 전국 경제인연합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양국은 서로 국가 비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의 미래 협력사업 발굴에 초점을 맞춰 의견을 나눴다고 지경부가 전했다.
-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측에서 박영준 지경부 2차관, 최종경 청와대 경제수석, 이상천 기계연구원장,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유창무 무역보험공사 사장, 하영봉 LG상사 사장, 양승석 현대자동차 사장, 유명민 포스코 ICT 사장, 이병건 녹십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 러시아측에서는 드보르코비치 대통령 경제보좌관, 보스크레센스키 경제개발부 차관, 이바노프 에너지청장, 부다르킨 국영송전망공사 사장, 알레신 로스테크놀로지 부사장, 쯔베레프 러시아 엘렉트로니카 사장, 슬로보딘 복합에너지시스템 회장 등이 함께 했다.
- 박영준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상호 보완적인 양국의 산업구조를 이용한 경협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면서 “양국이 공통으로 집중 육성을 추진중인 에너지 효율, 정보기술(IT), 나노 분야 등에서 앞으로 20년을 대비할 미래 경협 사업들이 중점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경 경제수석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및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정책 등 양국 국정과제의 유사성을 거론하면서 경협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공통 관심 분야에서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과 러시아 에너지청 간에 에너지효율 분야 협력, 무역보험공사와 러시아 에너지청 간에 러시아 전력망 현대화 프로젝트 참여 등 한국 기업의 대(對)러 수출·투자 지원, LG상사와 러시아 에너지청 간에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음.

- 세미나에 앞서 드보르코비치 대통령 경제보좌관과 한국 기업인들이 가진 간담회에서는 현대중공업, 효성중공업, LG상사 등이 참석, 러시아 전력망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는 문제를 논의했음. 한편 러시아 대표단은 14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15일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 단지를 각각 방문한다고 지경부는 소개했음.

● 러 블라디보스토크서 한-러 심포지엄 개막(10/13)

-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교류확대 및 관계증진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학술 심포지엄이 13일 오전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막돼 오는 15일까지 진행됨.
-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국과 러시아, 일본의 주요 대학과 연구소, 정부기관 소속 전문가들이 나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치, 경제, 에너지, 환경, 안보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함.
- 오는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APEC 총회를 주최하는 러시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도출된 주요 과제를 묶어 총회 준비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 김외교, 바라다브킨 러시아 외교차관 면담(10/12)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 중인 알렉세이 바라다브킨 러시아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을 면담했음. 김 장관과 바라다브킨 차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 핵문제와 내달 서울에서 열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 문제를 집중 논의했음.
- 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러시아를 방문해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좋은 협의를 가졌다”며 “정부는 이번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방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밝혔음. 김 장관은 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행동으로 확인되면 우리는 북한과 관계 개선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 바라다브킨 차관은 “러시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심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러시아가 북한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 특별한 반응은 없다”고 소개했음.
- 그는 또 러시아가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에 1억 달러 상당의 연방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 결과가 북한의 2차 핵실험이었다고 거론하고 ‘한반도 비핵화는 사실 북한의 비핵화’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



로 알려졌음. 아울러 바라다브킨 차관은 “G20정상회의를 계기로 러시아는 한국과 경제 현대화에 관한 상세한 협의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바라다브킨 차관은 이날 “장관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한다”며 김 장관에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의 축하서한을 전달했고 김 장관은 이달 말 베트남에서 열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의에서 한·러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음. 바라다브킨 차관은 이날 오후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와 한·러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갖고 수교 20주년을 맞은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향 등을 협의했음.

● 中, 한·미·일 3국과 양자 국방장관회담(10/11)

- 중국은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중·일간 다편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 갈등으로 대립각을 세웠던 한·미·일과의 군사관계를 개선하기위해 ‘제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가 열리는 하노이에서 한·미·일과 잇따라 별도의 양자 국방장관 회담을 갖게 될 예정임. 하노이를 방문중인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은 11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지난 9개월간 중단됐던 양국 군사관계를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음.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게이츠 장관이 량 부장과의 개별 회담에서 양국 간 안정적인 안보 대화의 틀을 마련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 중국은 지난 1월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계획에 반발, 미국과의 군사교류를 중단했고 한미서해연합훈련 계획에도 불만을 표시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음.
- 김태영 국방장관도 이번 회의에 참가하는 기간 량광례 부장과 한·중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군사현안과 관계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한국과 중국도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대응과 그 후속조치인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었고 양국 간 국방장관회담은 천안함 사건 이후 처음임.
- 량광례 부장은 이번 회의 참가 기간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과도 개별 회담을 갖고 현안을 논의할 예정임. 중·일 국방장관 간 회담은 지난달 다편다오 분쟁을 계기로 중국이 일본과의 고위급 인사교류를 중단한 이래 각료급으로는 처음 이뤄지는 것임.
- 일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간사장은 이와 관련해 10일 NHK방송에 출연, 양국이 분쟁에 대해 차분하게 논의해야 하며 여론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은 서로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량광례 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국방정책과 역내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안을 할 것이라고 중국 국방부의 관리들이 밝혔음.
- 중국은 남중국해의 난사(南沙)군도와 시사(西沙)군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과 분쟁을 빚고 있음.



ADMM+는 2006년부터 개최된 기존 아세안 10개국 국방장관 회의 (ADMM)에 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아태지역 주요 8개국도 참가하는 회의임.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